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 HELLO NEXEN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http://www.nexentire.com)

HELLO NEXEN  
Vol.63 2016년 봄호



# 사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보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사보 담당자  
055-370-4118  
hellonexen@nexentire.co.kr  
독자엽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 팀 스토리 멘토 앤 멘티 오 해피데이

·팀원들과 팀워크를 다지며 하루를 즐기고 싶으신 분,  
·어색한 선배 또는 후배와 친해지고 싶으신 분,  
·오랜만에 가족끼리 '공식적인' 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넥센 요리사

이번 호 70페이지 '넥센 요리사'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달걀 요리를 소개했습니다. 사보를 보고 따라 한  
달걀 요리든 스스로 개발한 달걀 요리든, 직접 만든 달걀 요  
리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족, 동료와 함께 나눴던 달걀  
요리의 사진과 레시피를 보내주세요.

이 외에도 사보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가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는 사보를 만든답니다!

※ 사보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주목 아이템'에서 소개한 아이템을 포함한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NEXEN zone

**04 포커스 온 넥센**  
세게로 뻗어나가는 넥센타이어

**06 넥센 이슈 1**  
사내 야구 동호회 친선경기

**08 넥센 이슈 2**  
RE개발3팀 한라산 등반기

**10 넥센 뉴스**  
넥센타이어의 이모저모

**14 넥센 그룹 탐방**  
지역 최고의 종합 문화 콘텐츠  
서비스 기업, KNN

**18 멘토 앤 멘티**  
인사기획팀 이종우-빈현지 사우의  
클레이 사격 체험기

**22 오 해피데이**  
채널운영팀 서정범 대리 가족의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나들이

**26 현장 스케치**  
타이어테크 대치점

**30 드라이빙 퀴즈**  
운전하며 알아야 할 필수 상식!

## SPECIAL zone

**32 스페셜 테마**  
NEXEN ROAD 하늘을 꿈꾸다

**34 스페셜 테마 1**  
상상을 현실로 만든 마법사,  
무한 상상의 대가들

**38 스페셜 테마 2**  
하늘, 그 길 위의 법칙

**40 스페셜 테마 3**  
하늘길을 거닐다

**42 피플 인사이드**  
홍대 따루주막 주모, 따루 살미넨

**46 팀 스토리**  
창녕 성형파트 6인의 막걸리 빛기 체험

**50 넥센 대담**  
입사 6년 차 사우들의 '우리들의 넥센타이어'

**54 처세 방법**  
'제곧내'가 웬 말이나, 직장인 메일·SNS 예절

**58 주목 아이템**  
깔끔한 넥센인의 잇 아이템

**60 트래블 로드**  
춤 추듯 변화무쌍한 하늘, 경남 남해

**66 카 앤 타이어**  
자동차 튜닝의 모든 것

## LIFE zone

**70 넥센 요리사**  
구하기 쉽고 영양도 좋은 달걀

**76 좋은 아빠 프로젝트**  
아이의 마음에 '톡톡' 노크해보세요

**80 아빠 탐구생활**  
제품평가팀 김현수 사우 아들 도영이의  
아빠 회사 탐방기

**84 문화 살롱**  
'어그로를 끌지' 말고 '개이득'으로  
나아갈 때! '신조어 세상'

**88 직장인 백서**  
오늘도 피로한 당신, 번아웃증후군을 아시나요?

**90 건강 돌보기**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를 눌러봐! 지압법

**92 보이스 톡톡**  
넥센인 양케이트  
당신 지갑의 컨디션은 어떤가요?

**94 머니 레시피**  
7년 만의 화려한 컴백, 비과세 해외펀드

**98 에필로그**  
퀴즈·독자엽서 당첨자



### 표지 이야기

상어의 민첩성과 지구력을 담은 패턴으로  
소리 없이 강한 사계절용 고성능 타이어  
엔프리즈 A-H,  
마일리지 성능을 강화해 경제성에 승차감,  
정숙성까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하늘, 그 꿈을 향한 드라이빙,  
엔프리즈 A-H이 함께합니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6년 봄호 통권 63호

발행인 강호천 발행일 2016년 4월 1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경영관리팀 (055-370-4118)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노은주, 심수희, 박경욱 사진 (주)유닉하우스 (02-511-9205) 교정 정수완 표지 일러스트 LEMO(김수민) 프로세스 (주)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주)두경프린텍

# 50

### 넥센 대담

입사 6년 차 사우들의  
'우리들의 넥센타이어'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80

### 아빠 탐구생활

제품평가팀 김현수 사우 아들 도영이의 아빠 회사 탐방기



# 1942~2016

2005

## 미주법인 설립

해외 판매법인 1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 거점



2012



## 피아트 OE 공급

이탈리아 피아트(FIAT) OE 공급업체 선정,  
글로벌 완성차에 타이어 공급 시작

2013



## 크라이슬러 OE 공급

미국 크라이슬러(CHRYSLER) 중형 세단에 신차타이어 공급 계약

2014

## IDIADA와 MOU 체결

스페인 자동차 성능시험 전문기관 IDIADA와 전략적 업무 제휴



## 중국 칭다오공장 설립

첫 번째 해외 생산 공장, 중국 시장 공략 개시



2008

## 글로벌 R&D센터 구축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 해외 전시회 참가

1994년 독일 에센쇼를 시작으로 세계 타이어 전시회 및 박람회 지속적 참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내일을 생각하는 기업,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내일의 가치를  
창조하는 넥센타이어.





야구를 사랑하는  
넥센인들이 하나 되어  
함께 즐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양산공장 다이넥스 올스타팀 VS 동부산지점 영업사원 야구팀

## 사내 야구 동호회 친선경기

글 이진우 사진 이용관

지난 2월 20일, 양산의 강민호야구장에서 양산공장 야구 동호회 다이넥스의 올스타팀과 동부산지점 영업사원 야구팀의 친선경기가 열렸다. 유니폼을 멋지게 차려입고 각 팀 더그아웃 앞에서 몸을 푸는 선수들에게서 프로 선수 못지않은 포스가 느껴졌다.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품질검사파트 김동익 사우의 아들 민규가 시구자로 나섰다. 조막만한 손에서 아무지게 날아간 공이 포수인 아빠의 글러브로 쏙쏙 빨려 들어간다. 한껏 웃으며 파이팅을 외치는 민규의 모습에 양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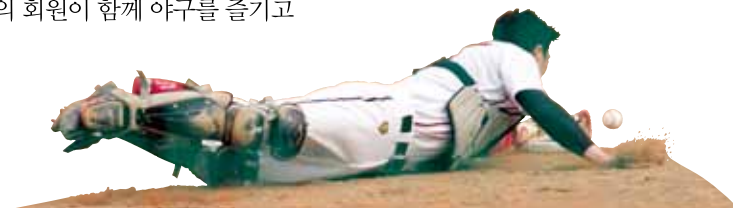
선수가 웃으며 긴장을 푼다.

제작년 경기 이후 오랜만에 만난 선수들은 반가운 눈빛을 주고받고 악수를 나누며, 오늘 경기에 즐겁고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을 다짐한다. 드디어 경기 시작, 동부산지점 영업사원 야구팀의 거센 공격에 2회 초까지 4점 뒤지던 다이넥스 올스타팀. 그러나 2회 말, 강정환 사우의 도루 성공을 시작으로 유지훈 사우의 폭발적인 타구로 역전에 성공, 결국 오늘 경기는 다이넥스 올스타팀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오늘은 친선경기라 경기 자체에 의의가 있습니다. 모두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좋은 경기였지요. 자, 이제 다같이 회식하러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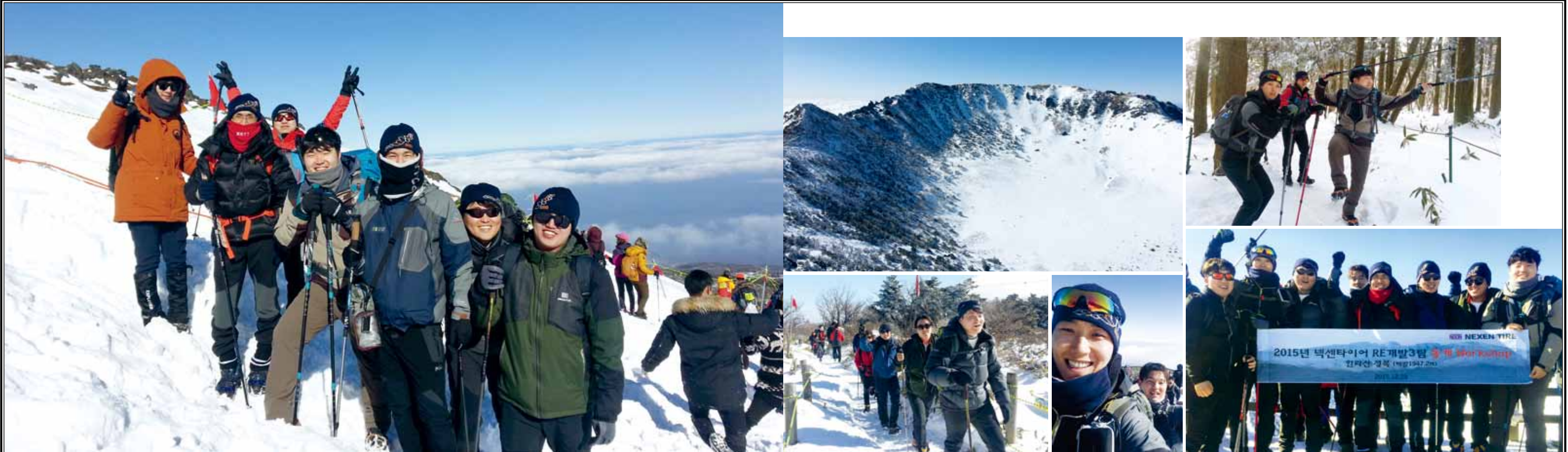
양산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다이넥스는 2005년에 출범된 야구 동호회다. 초창기엔 소수의 품질검사파트 직원 위주로 시작했지만,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100여 명의 회원이 함께 야구를 즐기고 있다. 다이넥스의 경기는 거의 1년 내내 진행된다. 산하에 부서별로 구성된 팀이 사내 리그를 치러 4강 구도로 우승팀을

가리는데, 준준결승 경기부터는 프로 리그 못지않게 치열하고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이뤄진단다.

교대 근무하는 사우들의 특성상, 어쩌면 프로팀보다 더 힘든 일정으로 경기를 치르지만 사우들은 웃으며 땀 흘리며 즐기는 서로의 모습에서 매번 대단한 열정을 느낀다고.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하는 것으로 업무 외 시간을 공유하니 사우 간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 활력이 더해져 회사 생활도 즐겁단다. 글러브와 배트 사이, 사나이들의 땀방울이 치열했던 오늘. 이 경기를 시작으로 야구를 사랑하는 넥센인들이 하나 되어 함께 즐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⑩







한라산에 오른  
RE개발3팀은  
2016년을 활기차게  
맞이했다.

힘찬 2016년을 위하여!

## RE개발3팀, 한라산에 오르다

글 이진우 사진 황민석(RE개발3팀)

지난해 12월 19일, RE개발3팀이 제주도 한라산에 올랐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5년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다. 눈 쌓인 산은 오르기가 힘든 데다 팀원들이 평소 등산을 즐기지 않았기에 지리산, 금정산을 경험한 후 도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각자 등반에 필요한 체력을 만들어두고 한라산에 오르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완벽한 체력 준비는 물론, 안전한 등반을 위해 아이젠과 스파츠를 공동 구매하여 설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우상 팀장의 아내 김유미 씨가 팀원 모두의 한라산 정복을 기원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했다는 등산용 비니를 착용하고 성판악 탐방안내소 앞에 섰다. 이 길로 출발해 속밭 대피소, 사라악샘, 진달래밭 대피소를 거쳐 백록담에 도착하게 된다. 성판악 탐방안내소에서 속밭 대피소까지는 약 1시간 20분, 사라악샘까지는 30여 분, 거기서 진달래밭 대피소까지는 약 1시간 10분을 더 가야 한다. 해가 빨리 지는 겨울에는 진달래밭 대피소에서의 입산 통제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12시 전에 통과하기 위해 기를 쓰고 올랐다. 평소 밥보다 치킨을 더 즐겨 먹는 김민균 연구원이 다리에 쥐가 나 종아리 근육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팀원 모두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서로 응원하며, 빠른 속도로 오른 덕분에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정상에 오르자 마치 하늘 위에 서 있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백록담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한라산의 정기가 온몸으로 흡수되는 듯 벅찬 기분마저 들었다. 평소 각자의 과업에 바빠 서로에게 소홀한 때도 있었지만, 이번 등반은

팀원 모두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황민석 연구원은 “힘들게 산을 오르며 드러난 팀원들의 배려심과 단합력을 보니 회사 생활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산행을 마친 후 먹은 제주도 흑돼지와 제주 소주 한잔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건배하며 부딪치는 잔의 청명한 소리에 그동안의 피로가 다 날아가는 듯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했다는 성취감 덕분일까. 팀원 개개인이 자신감을 얻고, 팀의 단합력도 극대화하며 RE개발3팀은 2016년을 활기차게 맞이했다. 올 한 해도 좋은 성과를 내어 넥센타이어의 중심에 우뚝 서는 RE개발3팀이 되기를 응원한다.📌





## 글로벌 통합 마케팅 캠페인 '퍼플 서밋' 출범

넥센타이어가 비즈니스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 '퍼플 서밋 (Purple Summit)'을 출범했다.

이 캠페인은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넥센타이어만의 고유한 캠페인으로, 향후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든 행사는 '퍼플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퍼플 서밋' 캠페인을 통해 파트너사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넥센타이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자리를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강호찬 사장의 대표이사 선임과 더불어, '퍼플 서밋'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캠페인 공식 론칭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016 퍼플 서밋, 맨체스터'가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렸다. 맨체스터 시티 FC의 홈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경기 관람 및 넥센 버스 투어, 넥센 컨퍼런스, 갈라 디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넥센타이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 17년 연속 '주주총회 개최 1호 기업' 이어가

지난 2월 17일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제58기 넥센타이어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넥센타이어는 현재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2000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주주총회 개최 1호 기업'의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투명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경영 방침과 주주에게 경영 성과를 빠르게 돌려주기 위한 주주 중심 경영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타이어 렌탈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사업 목적이 추가되었으며,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보고 그리고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이 의결되었다.

2015년 경영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1조 8,375억 원(전년 대비 4.5% 증가)과 영업이익 2,249억 원(전년 대비 7.8% 증가)을 기록했다.

넥센타이어는 세계 경기 침체와 업체 간의 경쟁 심화 속에서 이뤄낸 성장에 대해 "지속적인 R&D 투자로 품질과 기술력을 높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판매 확대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 '넥스트레벨 걱정 ZERO 프로그램'으로

### 렌탈서비스 강화

신개념 타이어 렌탈서비스 '넥스트레벨'을 실시하고 있는 넥센타이어가 지난 1월, 고객 혜택을 강화한 '넥스트레벨 걱정 ZERO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넥스트레벨 걱정 ZERO 프로그램'은 타이어 4개를 렌탈한 후, 타이어의 마모나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할 때 추가로 2개를 무상 제공하는 파격적인 서비스다. 또 마모나 파손이 아니라도 고객 요청 시 서비스 이용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타이어를 무상 제공받을 수 있다.

넥스트레벨 고객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및 보충, 마모 상태 확인, 위치 교환, 엔진오일과 부동액 점검 등의 무상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타이어나 차량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도 넥스트레벨 전문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다.







## 넥센타이어-농협, 상생협력 MOU 체결

넥센타이어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2월 15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넥센타이어 강호찬 대표이사 및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사는 우리 농산물과 대한민국 토종 타이어를 연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상생 파트너가 되었다.

양사는 향후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 마케팅 ▲농산물 기부 및 농촌 봉사 활동 등 우리 농산물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대한민국 토종 타이어 소비 촉진 공동 프로모션 전개 등 농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행사로 넥센타이어와 농협은 우수한 품질의 넥센타이어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선물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돕는 동시에 농업인에게도 농가 실익 향상이라는 직간접적 도움을 줄 방침이다.

## 2016 대한민국 HRD 교육프로그램 부문 대상

넥센타이어가 지난 3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년 대한민국 HRD(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교육 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HRD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HRD 대상'은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기업과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넥센타이어는 국내 영업 부문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전문 컨설턴트가 각 영업 지점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하는 '행동 코칭 과정'을 개발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왔다.

또한 '실천과 공유를 통해 스스로 진화하는 조직으로의 성장'이라는 모토 아래 각 영업 지점의 중점사항과 목표를 스스로 수립하고 실행해가는 과정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엔블루 HD plus.

### 독일 자동차 전문지 평가 최우수 타이어 선정

넥센타이어의 '엔블루 HD plus' 제품이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 '아체에 렌크라트(ACE Lenkrad)'가 실시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최우수 타이어(Test Winner)'에 선정됐다. '아체에 렌크라트'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의 자동차 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60만 부 이상 발행하는 유

력 자동차 전문지로, 이번 테스트는 유럽에 판매되는 주요 10개 브랜드의 여름용 타이어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평가에서 '엔블루 HD plus'는 다양한 평가 항목을 합한 총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자동차 주행 성능과 밀접히 연관된 젖은 노면에서의 핸들링, 제동력, 수막현상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 신제품 '엔프리즈 AH8' 출시

넥센타이어가 사계절용 고성능타이어 '엔프리즈 AH8'을 출시했다. '엔프리즈 AH8'은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의 도로 조건과 기후에 최적화된 주행 성능을 구현한 제품으로, 마일리지 성능을 강화해 경제성에 승차감, 정숙성까지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은 상어의 민첩성과 지구력을 모티브로 상어 지느러미를 연상시키는 패턴 디자인에 소음 저감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쥬스 타이어'라는 별칭이 붙었다. 또 기존 제품 대비 마모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갖춰 호평을 받고 있다.



## 온라인 전용 제품 'N7000 plus' 출시

넥센타이어가 지난 2월 15일, 온라인 전용 제품인 'N7000 plus'를 출시했다.

'N7000 plus'는 넥센타이어에서 처음 선보인 온라인 전용 제품으로, 국내 동급 타이어 중 최고 수준의 마일리지를 자랑하며 사일런스 시스템으로 정숙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주행 안정성과 편안한 승차감까지 두루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최적의 주행 성능을 구현했다.

온라인 제품 최초로 특별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여, 제품을 2개 이상 장착한 차량에 대해 사용자 과실에 의한 코드 절상에도 제조일이 2년 이내라면 신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지역 최고의 종합 문화 콘텐츠 서비스 기업

# KNN

지난 호에서 (주)넥센을 탐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나라 최대 지역 방송사로 단단히 자리매김한 KNN을 둘러보기로 했다. 영화, 방송, 광고, 게임 등 문화 콘텐츠의 거점, 센텀시티 한가운데 우뚝 선 KNN 신사옥을 방문했다.

글 이진우 사진 이용관

올해로 창사 21주년을 맞은 KNN. 부산·경남을 아우르는 유일한 광역 방송사인 KNN은 센텀 신사옥에 최첨단 뉴스 스튜디오, 다양한 크기의 제작 스튜디오, 공개방송이 가능한 라디오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IT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파일 기반 촬영, 편집, 송출 시스템을 가동해 시청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NN은 1995년 TV 방송, 1997년 라디오 방송 개국 이후 21차례나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5년에도 특집 다큐 〈노래로 보는 한국근대사〉, 라디오 청소년 프로그램 〈하이스쿨 콘서트-청춘예찬〉이 또다시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하며 지역 방송사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KNN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이달의 기자상 등을 수상하며 최고의 지역 방송사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KNN은 전국 방송이 다루지 못하는 지역민의 소식을 다루고, 실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지역 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첫 방송된 지역 시사 프로그램 〈시사포차 담〉에서는 포장마차에서 이야기 나누는 형식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의 시사 현안이나 사회 이슈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한다. 또 10월 방송 및 상영 예정인 TV영화 〈로큰롤할배〉는 꿈을 잃어버리고 살던 할아버지와 꿈의 실현을 갈망하는 소년이 힐링의 공간인 부산 기장에서 음악을 매개체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 프로그램은 TV영화 형식으로 제작되어 TV 송출 및 부산국제영화제 출품과 상영을 통해 본격적인 ‘메이드 인 부산, 콘텐츠 멀티유즈’ 모델을 제시한다.







KNN은 문화 인프라 확충과 교육 전시 콘텐츠 개발로 지역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지역민에게 폭넓은 공연 및 전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1,652㎡의 다목적 전시 공간인 월석아트홀에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전〉, 〈폴리처상 사진전〉 등의 각종 특별전을 기획하고, 철도 모형을 기반으로 전 세계 여행을 가능하게 한 세계 최대 규모 면적의 디오라마 전시 〈디오라마월드〉를 상설 전시하고 있다. 또 지하의 시어터에서는 대학로에서 검증받은 소극장 공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KNN광장에서는 섀터 맥주 축제를, KNN골든블루홀에서는 각종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컨벤션 행사를 진행해 지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KNN은 방송 중심 기업에서 이제는 방송을 포함한 문화·영상 중심의 기업으로 변모 중이며 타 방송사가 광고 수익으로 매출을 이어가는 데 반해



### KNN 문화 공간 넥센그룹 임직원 할인

디오라마월드 그룹 임직원 50%  
할인(현장 결제, 사원증 지참)  
KNN시어터 그룹 임직원 40%  
할인(사전 예약 후 온라인 이체  
또는 현장 결제, 사원증 지참)  
예약 051-664-7880

문화·영상 중심의 협찬 사업 수익 비중을 53%, 기타 임대 수익 비중을 3% 확보해 점점 치열해지는 방송, 광고 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또 KNN은 100억 원이 넘는 기금으로 KNN문화재단을 설립해 장학, 복지,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재단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12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년간 수익금 56억 원으로 장학사업과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단체 지원, 문화·예술인에 대한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껏 지역 방송으로서 지역의 네트워크 허브 역할에 충실했다면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지역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는 KNN의 포부가 담담하면서도 당당하다. 글로벌 문화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과감하고 참신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청년 KNN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㉞



인사기획팀 이종우·빈현지 사우의 클레이 사격 체험기

# ‘하늘을 향해 쏘라!’

춥지도, 덥지도 않은 어느 날 오후, 인사기획팀 이종우 차장, 빈현지 사우가 대구사격장으로 들어섰다. 살짝 긴 구름 덕에 하늘이 차분한 느낌이라 그런가, 어디선가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거, 총 쏘기 딱 좋은 날씨네!”

글 이진우 사진 이용관 촬영협조 대구사격장(053-312-0000)

## 날아가는 접시 탕! 스트레스 탕!

양산 사무실에서 직장 1시간 30분여를 달려 도착한 대구사격장. 오늘 이종우 차장과 빈현지 사우가 체험할 종목은 엽총으로 날아가는 접시를 맞히는 ‘클레이 사격’이다. 17~18세기 유럽의 귀족들이 하늘에 비둘기를 날려 총을 쏘 맞히던 데서 유래한 이 레포츠는 표적이 진흙 접시로 바뀌면서 ‘클레이 사격’이란 이름이 붙었다. 빠르게 날아가는 지름 11cm 정도의 접시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다.

사격 전, 안전한 체험을 위해 교관의 교육은 필수. 두 사우는 엽총을 견착하는 법, 방출구 포인트를 조준하는 법, 큰 반동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법 등을 설명하는 교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너무 긴장하면 몸이 뻣뻣해져 날아가는 접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총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깨에 딱 대세요. 견착을 잘못하면 반동의 충격이 어깨에 고스란히 전해져 멍이 들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사격하러 가볼까요?”

군대에서의 사격 경험을 떠올리며 은근히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종우 차장과 달리 눈은 웃지만 팔다리는 굳은 듯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빈현지 사우. 귀마개를 착용하고 총을 하나씩 받아 들었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에 ‘잘해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종우 차장이 먼저 사격대에 섰다. 실탄 2발을 장전하고 견착, 방출구 포인트를 조준하고 구령 ‘어이’를 외치자 주황색 접시가 날아오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불발. 순식간에 날아가는 접시를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잘 안 맞네.”

자신감 있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약간 위축된 어깨가 총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 “어이!”, ‘탕!’, ‘팟~’, 드디어 명중! 저 멀리 하늘에 주황색 접시 조각이 흩날린다. 한 번 맞히니 감을 잡았는지 제법 연속으로 명중에 명중이다. ‘평균 이상의 실력’이라는 교관의 말에 이종우 차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뒤이어 사격대에 선 빈현지 사우. 막상 견착하고 나니 애써 덤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떡해요”, “아...”, “좀 무섭네”란 말만 입가를 맴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첫 발포, ‘탕!’ 소리와 동시에 “악!” 빈현지 사우의 외마디 비명이 울려 퍼진다.

“생각보다 아프네요. 흑... 이거 어떡해~”

잔뜩 긴장해 한껏 올라간 어깨를 내리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는다. ‘탕!’, ‘탕!’, 우렁찬 발포음이 허공을 가르기만 몇 번, 하지만 빈현지 사우드 이내 감 잡은 듯 주황색 파편이 우수수 떨어진다.

“이분도 잘하셔요. 명중률이 평균 이상입니다.”

역시 그 선배에 그 후배인 건가,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났던데, 사격도 잘하고, 못하는 게 뭐야~





세계 곳곳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는 넥센타이어인  
뒤엔, 이 두 사람의 치열한  
땀방울이 가득하다.

### 내일이 더 기대되는 두 사람

인사기획팀에서 이종우 차장은 본사 인사 기획을 총괄하고, 빈현지 사우는 해외 인사를 관리한다. 특히 해외 인사 관리는 이종우 차장이 기획해 몇 년 전에 태동한 분야로, 지금도 프로세스를 정립해가는 중이다.

2002년에 입사한 이종우 차장과 2012년에 입사한 빈현지 사우는 10년 차이가 나는 선후배지만 해외 인사 업무는 전적으로 두 사우의 몫이기에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 팀에 왔을 때만 해도 없던 프로세스를 지금까지 차장님하고 만들어온 거예요. 예전엔 다른 회사 포맷을 참고해야 했다면 지금은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잡은 프로세스를 이용하죠. 2년 정도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보이더라고요. 이 프로세스를 토대로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합니다.”

실제로 해외 주재원 보상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였다. 사내에는 전문가가 없고, 국내 업체도 경험이 없고, 글로벌 업체에 의뢰하면 수천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이 두 사람은 타사를 벤치마킹하러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겨우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사람도 만나며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하나하나 해결해왔단다.

“자체적으로 소화하다 보니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젠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모두 후배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종우 차장은 빈현지 사우를 포함한 후배들을 두고 ‘나를 빛나게 해준 은인’이라 표현하며 말을 이었다.



“특히 현지 씨와 2~3년간 함께 일한 지금이 제 인사 기획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라고 생각해요. 인사 관련해 강의할 일도, 인사 전문지에 기고할 일도 생겼거든요. 제 커리어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한 게 모두 이 후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의 칭찬에 빈현지 사우가 조금은 민망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차장님 덕이라고 말한다.

“사실 차장님은 실무에서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차장님은 그걸 절대 용납 못하세요.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기 위해선 본인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저도 나중에 후배들에게 그런 선배가 되고 싶어요. 무늬만 선배가 아니라, 진짜 선배요.”

곳은 길을 헤치며 함께 걸어온 선배와 후배. 그 공을 서로에게 돌리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니 넥센타이어의 인사 업무, 특히 해외 인사 관리는 앞으로도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곳곳에서 역량을 펼치는 넥센타이어인 뒤엔, 이 두 사람의 치열한 땀방울이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sup>19</sup>





## 채널운영팀 서정범 대리의 가족 나들이 조물조물 꼬물꼬물 행복이 피어나다

아빠, 엄마와 함께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 전시된 다양한 피규어와 캐릭터를 구경한 것만으로 흥이 한껏 올랐는데, 클레이(점토)로 좋아하는 캐릭터를 함께 빚으니 아이들 입에서 “조물조물~ 예쁘게 만들어요”라는 노랫가락이 절로 나온다. 서정범 대리 가족이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보낸 하루 속으로.

글 기사윤 사진 이용관 촬영협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또 하나의 행복을 더하는 시간

“이야~ 뽀로로, 루피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 도착한 다섯 살 딸 가원이는 눈에 닿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볼 때마다 어린이집 친구를 만난 듯 반갑게 이름을 부른다. 일곱 살 아들 장원이 또한

TV로 보던 캐릭터들이 자기보다 큰 키로 눈앞에 떡하니 서 있으니 신기하기는 마찬가지. 아이들은 오늘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저조함에도 아빠 손을 잡고 애니메이션센터 이곳저곳을 누비느라 바쁘다. “평일에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와이프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지요. 주말에는 가족 행사가 많아, 이렇게 네 식구만 나들이하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나들이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서정범 대리 가족은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 전시된 갖가지 캐릭터를 구경한 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체험’을 하기로 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클레이로 캐릭터를 만든 뒤 제작 원리에 따라 직접 동영상을 구현해보는 과정이다. 아빠, 엄마와 함께 클레이로 캐릭터를 만드는 아이들의 눈은 시종일관 반짝반짝 빛이 난다. ‘뽀로로’의 ‘루피’를 만드는 엄마에게 “엄마, 되게 잘~하네”라며 다소 어른스럽게(?) 칭찬하는 가원이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웃음이 ‘뽕’ 터진다.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지 가원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조물조물~ 예쁘게 만들어요”라는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른다. 장원이는 <겨울왕국>의 ‘올라프’를 똑같이 만들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금은 찌그려진 올라프였지만 서정범 대리는 정말 똑같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화기애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캐릭터를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두 아이를 바라보는 부부의 눈길에는 사랑이 담뱃하다.



만든 지 30여 분이 지나고, 본격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체험이 시작되었다. 가족들이 만든 4개의 캐릭터가 뽀로로 배경의 세트장에 올려졌다. 물체를 조금씩 옮기고 사진을 찍고, 또다시 옮기고 촬영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찍은 사진을 이어 붙여 한 편의 동영상을 만들었다. 장원이는 애니메이션 감독처럼 캐릭터들의 움직임을 고민하며 조금씩 조금씩 자세를 바꿔본다. 그 모습이 제법 신중하다. 동생 가원이는 오빠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세트장을 만져보겠다며 귀여운 때를 쓴다. “첫째인 아들은 세심하고 조심스러워요. 장남인 만큼 책임감도 강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잘 안 해서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왜 얘기를 안 하느냐’고 물으면 ‘아빠, 엄마 걱정할까 봐’라고 대답하죠. 반면 가원이는 활발하고 적극적이에요. 행동 하나하나가 귀여워서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지요.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 정말 감사하답니다.” 어느덧 장원이가 감독한 애니메이션이 완성됐다. 4개의 캐릭터들이 얼음 동굴로 들어갔다 나오고 미끄럼을 탄다. 조물조물, 꼬물꼬물 빚어 만든 4개의 캐릭터. 조금 다른 생김새를 띠었지만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가족을 꼭 닮아 있다.

#### Info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위치 서울시 중구 소파로 126  
문의 02-3455-8341

#### 웃는 모습이 서로 꼭 닮은 가족들

부부의 첫 만남은 스키장에서 이뤄졌다. 남편 서정범 대리는 스키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아내 노성희 씨는 스키를 타러 스키장을 방문했을 때였다. 당시 노성희 씨 나이는 열아홉, 서정범 대리는 스물하나. 풋풋하던 시절 맺은 만남이 부부의 인연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초급자 코스인데도 잘 내려가지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대로 서 있으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안전상의 이유로 스키를 가르쳐주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차 한잔 나누게 되었죠.” 노성희 씨의 밝고 순수한 모습에 마음을 뺏겼다는 서정범 대리. 아내 노성희 씨도 듬직하고 다정한 서정범 대리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남편이 저를 따라다녔죠. 제 주변에 자주 머물렀는데 돌이켜보니 저를 많이 좋아해서 그랬네요.(웃음) 고백을 받고 나니 이 사람이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듬직했고 가식 없이 진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10여 년 전 추억에 서정범 대리는 멧쩍은 웃음을 내비친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얻으면 소위 ‘잡은

물고기’라며 긴장을 풀지 않던가. “5년 연애편 동안 남편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결혼 후에도 성실한 남편, 성실한 아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들이를 통해 부부는 다시 한 번 서로가 인생의 동반자임을 확인했다. 장원, 가원이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고른 사랑을 나눠주겠다. “요즘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장원이, 가원이가 받은 만큼의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지금처럼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겠다는 부부. 활짝 웃는 모습이 서로를 꼭 닮았다. 인생 3분의 1에 가까운 그 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했고 장원, 가원이라는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켰다. 앞으로의 시간 또한 가족의 사진첩을 행복으로 물들일 것임이 분명하다.❷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 타이어테크 대치점

지난해 2월에 오픈해 리모델링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타이어테크 대치점. 고객에게는 쾌적하고,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11명의 직원들이 밝게 일하고 있는 타이어테크 대치점으로 가보자.  
글 김지혜 사진 이용관



대리 이우찬

“고객의 눈높이에서 사소한 불편 사항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비부장 강남복

“웃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친절을 베풀습니다.”

소장 류태영

“고객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정비팀



계장 안윤택

“빠르고 정확한 배송으로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주임 한병열

“고객의 차를 내 차처럼 생각하며 세심하게 체크합니다.”

대표 황정근

“고객과 직원의 편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팀, 도매팀

회계팀 과장 전미정

“정확한 업무 처리로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도매팀 부장 이윤성

“작은 실수도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도매팀 부장 조형희

“활기차면서도 신중한 자세로 업무에 임합니다.”

도매팀 사원 김세영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왼쪽부터 전미정 과장, 조형희 부장, 이윤성 부장, 김세영 사원





정말  
꼼꼼하게  
봐주시는군요.



**황정구 대표** : 어서 오세요.  
타이어테크 대치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정구 대표입니다.  
업무 전과 후, 전 직원의 정리 정돈으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안윤택 계장** : 직원들 모두  
책임감이 강해서 굳이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생산일이 먼저인 상품을 위에, 최근 것을  
아래에 놓아 타이어가 생산일자순으로  
순환되게 합니다.

**강남북 정비부장** : 위치상  
강남권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입차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 고객들에게 엔페라 제품이 아주  
인기예요. 저는 25년 정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합니다.

**황정구 대표** : 오랜 기간  
일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없애고자 한 달에 걸쳐서 ERP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지금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윤성 부장** : 이 프로그램  
으로 재고 관리부터 고객  
관리까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각 팀의  
업무 효율성은 높아지고 작업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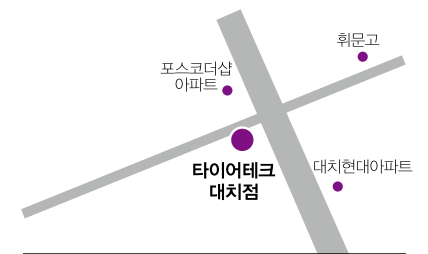
이 정도면  
믿고 맡길 수  
있지요.



**이우찬 대리** :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제 블로그에 정비 과정을  
사진 찍어 올리고 있어요. 고객 본인 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신뢰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병열 주임** : 타이어 정비에는  
고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해요. 정비를  
마친 뒤에도 몇 번의 점검 후에 고객에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정구 대표** :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주문이나 정비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변함없는 서비스를 약속합니다.㉔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66  
문의 02-588-9070



운전하며 알아야 할 필수 상식!

# Driving Quiz

운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애매한 운전 상식이 있기 마련이다.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부터 헛갈리는 교통 법규까지 간단한 퀴즈를 통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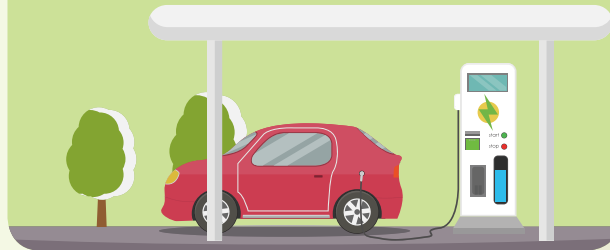
정리 김지혜 자료협조 넥센타이어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nexentire.korea)

## Quiz 1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세금  
감면 혜택은  
2016년까지다?

## Answer

아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소비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 더불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구매자도 면세 한도 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Quiz 4

터널에서 앞지르기하면 위법일까?

## Answer

위법이다

교차로, 교각, 터널, 급커브 등 대형 사고 위험 구간에서는 앞지르기와 차로 변경을 할 수 없다. 앞지르기와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는 실선으로 차로를 구분하고 있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평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자동차 운전 상식. 드라이빙 퀴즈를 통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세요!

## Quiz 2

차 유리가 썩썩 얼었을 때 알코올과 세제만 있으면 1분 만에 녹일 수 있다?

## Answer

녹일 수 있다

알코올의 어는점은 -144℃이다. 알코올이 얼음과 섞이면 어는점도 함께 낮아지므로 얼음이 쉽게 녹는다. 만약 언 유리창을 녹이기 위해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추워서 수축되어 있던 유리가 팽창하여 깨질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Quiz 3

주차 경고 스티커는 '선크림'을 사용하면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

## Answer

있다

선크림에 함유된 유분기(오일)가 테이프의 접착 성분 사이에 스며들어 테이프 잔여물을 유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스티커 접착면 상단에 있는 비닐막을 제거하고 스티커 위에 선크림을 고르게 발라준다. 시간이 지난 후, 손톱으로 남은 스티커를 떼어내면 된다.



## Quiz 5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를 경우 어느  
신호를 먼저 따라야  
할까?

## Answer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를 먼저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조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가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와 다른 때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경찰공무원(모범운전자나 군 헌병 등도 포함)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 Quiz 6

녹색 신호 중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었다면  
단속 대상일까?

## Answer

맞다

녹색 신호에 진입했다라도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다면 꼬리 물기의 단속 대상이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주행 중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교통이 혼잡하여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㉞





# NEXEN ROAD

## 하늘을 꿈꾸다

인간이란 유한한 존재가  
인류라는 무한한 가치를  
날을 수 있었던 까닭은  
하늘 너머의 세상을  
동경하고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어떤 상상이, 어떤 꿈이  
펼쳐지나요?

당신의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새로운 가치로 피어날 수 있기를,  
그 꿈을 향해  
더욱 높이 비상할 수 있기를

넥센타이어가 응원합니다.



# 상상을 현실로 만든 마법사, 무한 상상의 대가들

그들의 상상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풍요도 존재하지 못했을 터. 당시에는 엉뚱한 상상 혹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웃음도 받았지만, 결국 이들의 상상은 세상의 눈부신 변화의 초석이 되었다.

글 기사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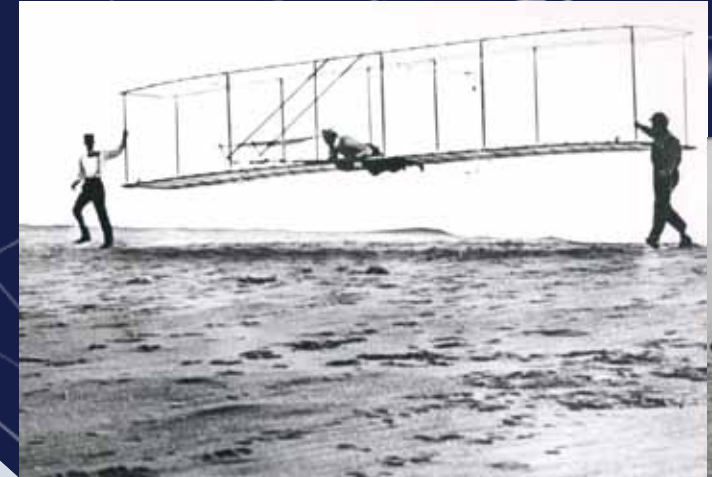
## 400년 전 낙하산을 꿈꾼,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등 수많은 예술 작품을 남긴 화가이자 해부학, 동물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오늘날의 헬리콥터와 낙하산에 해당하는 물건까지 고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다빈치가 상상한 헬리콥터는 ‘나선형 날개를 만들고 고속으로 회전시키면 수직으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에서 비롯되었다. 일부 물리학적 오류는 있지만 그 개념은 지금의 헬리콥터와 별반 다르지 않단다. 만약 그의 상상을 뒷받침해줄 기술적 배경이 존재했더라면 다빈치는 비행 시대를 연 첫 번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다빈치의 상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떨어지는 것에도 미쳤다. 보다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기구, 낙하산을 상상한 것이다. 다빈치가 매일 상상하고 기록했던 메모는 600쪽 정도에 달한다. 상상만 한 것이라 아니라 그 이미지를 현실로 어떻게 구현할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했던 것. 이는 상상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상상을 구체화하는 요소가 많을수록 그 상상의 무게가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일 것이다.



## 하늘을 나는 상상을 실현시킨, 라이트 형제

하늘을 날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오랜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이름, 라이트 형제에 의해 최초로 실현되었다. 라이트 형제는 새들을 관찰하다가 날개가 기울면 날개 끝을 뒤틀어서 균형을 잡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새처럼 양력(액체와 기체 같은 유체 속에서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 받는 힘)의 효과를 최대치로 활용하기 위해 고심했던 그들은 1901년 풍동을 만들었다. 풍동은 실제 하늘에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공기 흐름 조절 장치로 길이 182cm, 높이 60cm에 달했다. 풍동을 통해 글라이더 날개 모형 200개를 시험했고, 마침내 길고 얇은 날개가 보다 큰 양력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라이트 형제의 실험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비행 거리를 늘리는 시도를 할 때마다 추락을 거듭했다.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 동체를 조절할 방향키의 필요성을 밝혀냈고 실제로 제작에 이르게 되었다. 방향키로 조종 성능이 크게 향상되자 비행 거리도 늘어나게 되었다.

비행 거리가 늘어나자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완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흥분하였고, 가솔린엔진을 설치해 오랜 시간 비행을 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날 수 있을 만큼 가볍고 힘센 엔진은 당시 자동차 시장에서 구할 수 없었다. 결국 라이트 형제는 엔진을 스스로 설계, 제작함으로써 문제를 정면 돌파하였다. 그 결과 1903년 세계 최초로 유인 동력 비행에 성공했다. 비행 시간은 단 12초, 비행 거리 36.5m. 세계 최초 하늘을 난 비행기의 이름은 ‘플라이어 1호’다. 1년 후 라이트 형제는 신문기자들을 초청해 새롭게 고안한 ‘플라이어 2호’를 타고 비행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플라이어 2호의 실패는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전략하게 만들었다. 라이트 형제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허무맹랑하다는 야유를 받아왔다. 하지만 형제는 세간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았다. 도전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 새롭게 고안하기를 반복, 결국 플라이어 3호를 통해 38분 동안 약 38km의 하늘을 나는 주인공이 되었다.





### 말없이 달리는 마차를 꿈꾼 카를 벤츠

“자동차와 기름을 사는 것은 곧 자유를 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조너선 맨틀이라는 미국 작가가 자신의 저서 〈자동차 전쟁〉에서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자동차는 인간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자동차를 통해 인간은 시공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반경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최초의 자동차는 1765년 제임스 와트의 와트식 증기기관차로 기록되고 있지만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1886년 카를 벤츠에 의해

개발됐다. ‘말없이 달리는 마차’를 상상했던 카를 벤츠는 바퀴 3개가 달린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그의 자동차는 신기한 구경거리에 불과했다. 의기소침해진 카를은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했단다. 카를의 자동차는 그의 부인 베르타 벤츠에 의해 빛을 볼 수 있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이 자동차를 끌고 100여km 떨어진 친정에 다녀온 것. 가는 데만 12시간이 걸렸지만, 카를의 상상과 베르타의 도전이 자동차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다.

### 최초로 공기압 타이어를 개발한 존 보이드 던롭



자동차나 자전거의 바퀴가 딱딱한 쇠덩어리라면 어떨까. 지금처럼 공기를 넣은 타이어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수의사였던 존 보이드 던롭이다. 그의 발명은 외아들 조니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됐다. 열살 된 조니가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넘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 당시 모든 바퀴는 무쇠로 만들어졌거나 나무 바퀴 위에 무쇠를 씌운 것들이었다. 그래서 작은 돌멩이에 부딪히기만 해도 크게 흔들리기 일쑤여서 사고가 자주 났다. 아들의 상처를 본 존은 안전한 타이어를 상상했고 궁리 끝에 ‘말랑말랑한 고무로 입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닿았다. 나무 바퀴의 무쇠를 벗겨내고 고무관을 씌워봤지만,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고민을 계속하던 찰나 축구공에 바람을 넣어달라는 아들의 부탁에 영감이 떠올랐다. 자전거 바퀴에 고무로 씌우고 그 속에 공기를 넣어 탄력을 갖도록 하면 좋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 것. 위대한 상상은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누군가를 향한 배려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은 최초의 공기압 타이어의 탄생을 통해 알 수 있다.⑩

### Tip 무한 상상 대가 따라잡기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친숙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창의성이 깨어난다고 했다. 그 우연한 ‘마주침’을 위해, 우리는 새롭게 생각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상상력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해.

#### Step 1. 호기심으로 질문하기

뉴턴은 20대 중반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는 어느 날 돌을 거닐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우주의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만유인력)의 증거였다. 그러나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는 그 증거를 유심히 보지 않았다. 뉴턴만이 걸음을 멈추고 그 사과를 지켜봤다. 그리고 뉴턴은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어린아이가 할 법한 질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았을까. 그러나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어느 순간 새로운 관점으로 사과와 지구의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위대한 발견이 가능했다. 창의성의 시작은 이와 같이 아주 뻔해 보이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 Step 2. 개념 재규정하기

주변의 일상용품 중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자. 그 물건의 용도는 잠시 잊고, 생전 처음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물건에 색다른 이름을 짓고,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글로 써보자. 프랑스 태생의 미술가 뒤상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켰다. 뒤상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기를 뒤집어놓고 1917년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 미술관에 내놓았다. 당시 이 작품은 전시장 칸막이 뒤에 숨겨진 채 차마 공개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사물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영감을 주었다.

#### Step 3. 이야기 만들기

〈책과 콩나물〉이야기를 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서 도둑을 외계인으로 바꾼다면 어떨까.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동화의 이야기를 바꿔보자. 그리고 주변 사물의 입장이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밝은 세상에 있다가 캄캄한 목구멍을 지나 몸속을 여행하는 밥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내달리다 묶여 있어야 하는 자전거, 여름내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등등. 어느새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어간다.



# 하늘, 그 길 위의 법칙

Q.

비행기가 자주 다니는  
하늘길은 어디일까?



하늘은 수만 개의 하늘길, 비행기가 다니는 항공로로 이뤄져 있다. 그중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공로는 '김포-제주' 노선으로 이 구간을 오가는 연 인원이 2015년 1,300만 명을 돌파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는 일이 흔치 않은 호사로 여겨졌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또 다른 방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항공로는 어디일까.

작년까지만 해도 비행 거리 1만 3,800km에 비행 시간 16시간 55분인 시드니-델러스 노선이었으나 올 12월 취항 예정인 비행 거리 1만 4,539km, 비행 시간 18시간 30분의 도하-오클랜드 노선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됐다. 하지만 싱가포르항공이 역대 최장거리 노선이었던 싱가포르-뉴욕 노선(비행 거리 1만 5,300km, 비행 시간 18시간 50분) 부활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나 이 기록마저 곧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Q.

비행기는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갈까?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며 이정표에 따라 목적지로 향한다. 하늘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는 어떻게 길을 찾는 것일까. 답은 항공등대에 있다. 지상 곳곳에는 비행기를 위한 항공등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역할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그중 항공등대는 항공로 상의 중요 지점을 가리키기 위하여 설치되며 백색, 적색 섬광을 회전시키며 방출한다. 비행기가 매번 똑같은 길로 항해할 수 있는 까닭은 이와 같은 항공등대가 지상 곳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 하지만 이런 항공등대도 태평양을 횡단하는 곳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위나 비행 시간을 역산하여 현재 위치를 산출한다. 물론 컴퓨터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

그 옛날에는 항공기 조종실에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항법사, 무선통신사 등 6명이 탑승하여 항공기의 속도나 바로 아래의 지형, 밤하늘의 별의 위치 등을 계산했었다.

비행기 탈 때 누구나 한 번쯤은 품었을 궁금증. 떠난다는 설렘과 도착한다는 안도감에 그 궁금증은 금세 사라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준비했다. 몰라도 비행기 타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하늘길, 그 길 위의 법칙을, 비행기 옆자리의 처음 본 그녀 또는 그에게 마음을 뺏겼다면 이 '썰'을 풀어보시라.  
글 기사윤

Q.

비행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비행기의 자취에 따라 구름이 아로새겨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비행운이라고 하는데, 비행기의 항적을 따라 생긴 인공 구름을 말한다.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차가운 대기가 서로 부딪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때 비행기 연료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등이 수증기의 응결을 돕는 역할까지 하면서 비행운이 생성된다. 이와 같은 비행운은 8,000m 이상의 고도와 영하 40℃ 이하의 조건에서 생성된다. 또 다른 비행운은 비행기 날개에서 찾을 수 있다. 비행기 날개의 윗부분은 양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살짝 굴곡져 있다. 따라서 비행기를 지나는 공기의 속도는 날개 위쪽과 아래쪽이 다르다. 이때 갈라져 있던 두 공기가 날개 끝에서 만나는 것을 '와류'라고 하는데, 이 와류로 인해 특정 부분의 기압과 기온이 내려가게 된다. 자연스럽게 수증기가 얼어붙으면서 하얀 구름이 생성되는 것. 와류에 의한 비행운은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나 착륙하기 직전의 낮은 고도에서 발생한다.

Q.

비행기의 창문은  
왜 타원형일까?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창문과 달리 하늘길을 나는 비행기의 창문은 천편일률적으로 타원형이다. 이는 하늘길을 달리려면 특별한 법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 높은 고도를 날 때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한 장치로서, 만일 비행기의 창문이 네모나면 모서리 한 점에 압력이 집중되어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과거 비행기의 창이 사각형일 때가 있었다. 1952년 탄생한 최초의 상업용 여객기 '드 하빌랜드 DH 106 코멧'은 네모난 창을 달고 런던과 요하네스버그 상공을 이었다. 처음에는 운항이 순조로웠으나 1953년 5월 공중에서 분해되고 말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의 창문이 타원형으로 바뀌었다고. 여기서 드는 또 한 가지 궁금증, 비행기 창에는 왜 서리가 끼지 않을까. 창의 아래쪽을 자세히 보면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기내 공기가 그 구멍을 통해 흘러 들어가 바깥 창의 표면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sup>①</sup>



# 하늘길을 거닐다

아직 당신이 걸어보지 않은 아름다운 길이 많다. 흙과 잔디가 깔린 폭신폭신한 산길이 그중 하나이다.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눈앞에는 어느새 사방이 파란색으로 들어차고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휘감는다. 수많은 야생화가 좋은 길동무가 되어주니, 걸으면 걸을수록 하늘길 위를 걷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글 김지혜



©Pixabay

## 남미 트레킹의 꽃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구의 땅끝, 남아메리카의 최남단에 위치한 파타고니아,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천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야생 그대로의 순수함, 험준한 산악 지형이 보여주는 장관, 신비로운 푸른빛을 발하는 거대한 빙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다. 특히 만리장성 빙하로도 불리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4~5년에 한 번씩 붕괴되는데, 큰 얼음덩어리가 시원한 광음을 내며 떨어지는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들이 구름 떼처럼 모여든다.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속해 있는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의 빙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콩스레덴 ©한길사



밀퍼드 ©뉴질랜드관광청

## 때 묻지 않은 대자연의 웅장함 뉴질랜드 밀퍼드

광활한 평야와 거대한 산맥, 피오르드와 빙하가 만들어낸 신비로운 자연. 영화 〈반지의 제왕〉, 〈호빗〉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곳은 여행자들에게 천국과도 같다. 밀퍼드는 뉴질랜드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9개의 등산로 ‘그레이트 워크스(Great Walks)’ 중 하나다. 이 길은 약 53.5km로 뉴질랜드 남섬의 남서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선 바위투성이의 언덕, 숨 막히게 가파른 협곡,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듯한 장엄한 폭포, 무성한 숲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잘 보존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뛰노는 야생동물을 바라보면 금세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키나발루 산 ©개울가



콩스레덴 ©한길사

## 다양한 동식물의 보고 말레이시아 키나발루 산

키나발루 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말레이시아 최초의 세계문화유산이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 트레킹 코스로, 타 지역의 트레킹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동남아 최고봉 정상에 오를 수 있다. 키나발루 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인 라플레시아의 서식지로, 이 꽃은 1년에 일주일 정도만 볼 수 있어 신비함을 더한다. 또 지대에 따라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어 생명의 산이라 불린다. 낮은 지대는 열대 지역으로 저지대 우림을 이루며 중간 지대는 저산대 참나무와 무화과나무, 철쭉나무 등 온대 지역 나무가

가득하다. 또 고지대에서는 산 정상을 중심으로 침엽수와 고산식물을 볼 수 있다.

## 북유럽 야생의 길 스웨덴 콩스레덴

스웨덴의 가장 북쪽, 노르보텐 주에 위치한 콩스레덴은 스웨덴 말로 ‘King’s Road’, 즉 왕의 길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름만큼이나 매력적인 이곳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유네스코는 1996년 이 지역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복합 유산으로 지정했다. 이 길은 아비스코라는 작은 마을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쪽 뻗어 내려와 헤마반까지 이어지며 총길이는 440km에 이른다. 길이 험하지 않고 높낮이도 거의 없는 코스로 고유의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늪지처럼 걷기 힘든 구간은 널빤지를 깔아 오가기 쉽게 만들었다.⑩



# 미래를 달리는 사람

청회색의 아름다운 눈동자, 보드라운 금빛 머리. 핀란드인 따루 살미넨은 한눈에 봐도 이방인이다. 그러나 입을 열면 영락없는 한국 사람이다. 그녀의 유창한 한국어 구사에 한 번, 막걸리 맛에 반해 홍대 앞에서 6년째 '따루주막'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는 것도 잠시, 최근 <가장 가까운 유럽, 핀란드>라는 책을 냈고 대학원 논문을 준비 중이며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취득을 목전에 두었다는 얘기에 입이 떡 벌어진다. 유쾌한 핀란드인 따루는 끊임없이 미래를 달린다.

글 이지연 사진 이용관

## 따루 살미넨

### 제2의 모국, 대한민국

저녁 영업 준비로 분주한 홍대 앞 '따루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장은 보이지 않고 셰프와 아르바이트생만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바빠 움직이고 있다. 구역(ㄱ)자 형태의 주막에는 신발 벗고 올라가 앉는 테이블이 대여섯 개, 신발 신고 앉는 테이블이 또 그만큼이다. 겨울 끝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팟캐스트 '손미나의 짹수다방'에 출연하고 오는 길이라며 따루가 주막에 급히 들어섰다. 길고양이였다가 가족이 된 '순신'이가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큰 몸뚱이를 비비적거리며 반가움을 표했다. "다른 길고양이들이 공격해오면 순신이 앞장서서 제 가족을 보호해요. 그 모습이 제법 용맹해서 존경하던 이순신 장

군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되었어요." 탁월한 미모 덕에 '김태희'라 이름 붙인 고양이를 포함해 세 마리의 길고양이가 따루주막의 가족이다. 주막으로 내려가는 계단 초입에 작은 갤러리처럼 진열된 꽃과 고양이 사진이 따루의 따뜻한 성정을 짐작케 한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따루는 핀란드 고향 집에도 핀란드 옛 대통령의 이름을 딴 열여섯 살 된 할머니 고양이 '마우너'가 있다며 살포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따루는 1998년, 스물두 살이던 대학생 시절 펜팔 친구를 찾아 핀란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때 고려대학교 앞에서 처음 막걸리를 맛봤다는 그녀는 '건강 요구르트' 같은 그 맛에 점점 빠져들었다고





고백한다. 막걸리 잔을 기울인 횃수만큼 한국 생활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단다. 헬싱키대학에서 한국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학을, 헬싱키 폴리테크닉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따루는 200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했고 2007년 TV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서 술직하고 털털하며 위트 있는 말솜씨로 주목받았다. 올해 우리 나이로 마흔 살이 된 그녀의 삶에 한국은 반평생의 역사가 깃든 곳이자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갖게 한 제2의 모국이나 다름없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한국과 핀란드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고 싶어요.

## 치열한 삶의 현장

주한 핀란드 대사관에서 회계 및 영사 업무를 하며 한국과 핀란드의 가교 역할을 해온 따루는 대사관을 나와 새로운 일을 계획 중이다. 6년 전 따루주막을 열 때, 막걸리학교를 다니며 주조법을 배웠던 뜨거운 열성을 사업과 공부 쪽으로 집중시킨 것이다.

“예전부터 생각했던 무역업을 해보고 싶어 핀란드에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요즘 저를 ‘따 사장’이라고 불러요.(웃음) 핀란드 투르쿠대학교에서 다시 교육학을 공부하며 지금은 한국

중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관한 논문을 준비 중이에요. 4월엔 1년 반 동안 공부했던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취득의 최종 관문만 남겨놓고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도 취득하게 될 것 같아요.”

종종 방송에도 출연하고 통번역 일도 한다는 따루에게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것 같다”고 하자 “요즘엔 분신술이 필요할 정도”라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는다. 그럼에도 따루의 얼굴에선 걱정과 근심, 후회보다는 관심과 긍정, 믿음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왔다.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잘될 거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이겨내요.”

6년 전,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따루주막을 차릴 때도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시작부터 몇 년간 호황을 누렸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그러던 것이 국내 경기에 불황의 바람이 불고 막걸리의 인기가 사그라지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닥쳤다. ‘제아무리 단골손님이라도 2년에 한 번 우리 가게를 찾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그녀

는 셰프와 함께 안주를 리뉴얼하는 변화를 시도한 결과 다시 안정권을 찾아가고 있다. 그녀는 사람들이 따루주막에 찾아와 마음 편히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애길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내성적인 자신이 막걸리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과 친분을 나눈 것처럼 말이다.

## 매일 자라나는 꿈

“한국에서는 마흔을 ‘미혹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혹(不惑)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마흔이 되어보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흔들리는 나이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에요.”

따루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지난 2월 <가장 가까운 유럽, 핀란드>라는 여행 책을 썼다. 따루주막의 단골손님으로 와서 절친한 사이가 된 사회학자 이연희 씨와 함께(1년 반 사이 세 번이나 핀란드와 한국을 오가며) 집필했다.

“몇 년 전, 핀란드까지 가는 직항이 생겨서 9시간이면 핀란드에 갈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핀란드가 엄청 먼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가깝죠.”

핀란드와 한국이 비슷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그녀는 이번 집필을 기회로 핀란드 곳곳을 여행하며 핀란드의 제주



도 격인 올란드(Åland)의 풍경에 반했고, 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놀러갔던 산타의 마을 라플란드(Lapland)에서 잊고 지내던 추억을 다시 마주했다. 어떤 운명의 끈이 한국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하더라도 20년 가까이 살아온 한국에서의 삶은 그녀의 확고한 선택이자 결정이 부른 결과물임이 분명하다. 동물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며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소중히 여기는 따루(Taru)의 이름은 핀란드어로 ‘동화(童話)’라는 뜻이다. 동화의 나라 핀란드에서 한국으로 온 동화, 따루. 그녀는 동화 속을 나와 현실과 부딪치며 치열하고 분주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고 있다. 사회의 약자, 약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지금처럼 한국과 핀란드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고 싶다고 담담하게 전하는 따루. 그녀의 꿈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창녕 성형파트 6인의 막걸리 빚기 체험

# 내가 마실 막걸리는 내가 빚는다!

부산의 발효문화학교  
연효재에 (창)성형파트  
Green조 사나이 여섯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마시기만 하던 막걸리를  
직접 빚다니! 은근히 기대에  
찬 모습이다. 따루 시도  
좋아하는 막걸리 만들기,  
직접 도전한다!

글 이진우 사진 이용관

## 고두밥과 누룩, 물만 있으면 막걸리 똑딱!

뽕알고 맑은 막걸리를 한 모금 천천히  
들이켄다. 부드러운 목 넘김 끝에 입안에  
남아 맴도는 달짝지근한 맛에 입맛을  
다시고는 또 한 모금, 다시 한 모금.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시다 보면  
어느새 기분 좋은 취기가 오르겠지.  
봄바람 맞으며 막걸리 한 잔, 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돈다.

(창)성형파트의 여섯 사우가 오늘 이  
막걸리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쌀, 누룩,  
물만 있으면 고소한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간단한 이론 수업을 들은 후 본격적으로  
막걸리 만들기에 나섰다. 미리 찐고 있던  
고두밥을 옮겨 주걱으로 뒤적뒤적, 식히기  
시작한다. 평소 먹던 밥과는 사뭇 다른  
촉감에 김권중 조장이 조금 떼어 입에



넣어보더니 '잘못된 밥' 느낌이라며 웃는다.  
“식감은 생소한데 계속 씹다 보면 끝에  
단맛이 느껴져요.”

이 말에 다른 사우들도 다 밥을 떼어  
먹는다. 은근히 중독되는 맛에 고두밥을  
입에 넣는 손이 멈출 줄 모른다. 잘 식은  
밥과 누룩을 섞고 물을 넣어 뽕뽕뽕  
손으로 비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비율.  
쌀 1kg에 누룩 100~200g, 물 1.2~1.5L면  
적당히 달콤한 맛을 낼 수 있다고. ‘거품이  
올라오도록 문지르라’는 주문에 사우들은  
팔에 힘줄, 핏줄 세워가며 열심이다.  
“우와, 이거 색은 그럴듯한데? 맛은  
어떨까?”







이정윤 사우가 손가락으로 물을 콕 찍어  
먹어보더니 '흙탕물 맛'이라며 미간을  
찌푸린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맛일지라도  
일주일 후 지게미를 걸러내면 막걸리  
원주가 된다. 원주에 꿀이나 물엿, 과일청  
등을 넣으면 입맛에 맞는 달달한 막걸리  
완성!  
“오늘 집에 가서 통을 면포로 덮거나 랩을  
씌워 구멍을 송송 뚫으세요. 귀찮으면  
통 뚜껑을 반 정도 돌려두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일주일의 중요하다. 이산화탄소가  
빠질 수 있도록 공기가 통하게 하고, 3일  
후부터 매일 저어야 한다. 22~25℃ 정도의  
따뜻한 곳에 보관하고, 난방이 되는 바닥에  
통이 바로 닿지 않도록 책을 괴어둘 것.  
주의 사항을 되뇌며 사우들은 맛있는  
막걸리의 탄생을 기대했다. 빛은 술은 발효

통에 잘 넣어두고, 막걸리 팩 만들기에  
돌입! 막걸리와 보습 용액, 아로마 용액  
등을 혼합해 마스크 시트에 잘 스며들도록  
조물조물하면 끝. 깨끗이 세수하고 이거 한  
장 붙이고 자면 꿀 피부 미남 예약이오~

### 타이어 공정의 꽃, 성형파트 Green조

오늘 모인 사우들은 각 공정의 반제품을  
조합하여 하나의 그린타이어를 만드는  
창녕공장 성형파트 Green조 소속이다.  
타이어 제조의 중심 공정인 만큼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저희는 앞선 공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반제품으로 하나의 완성품, 타이어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많은 공정 중에서도  
가장 바쁘고 중요한 공정이라 생각해요.  
'화합의 장' 같은 느낌일까요. 하하.”

이들의 활기 가득한  
에너지가 창녕공장의  
중심에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타이어 반제품 화합의 장’에서 일해서인지,  
이 사우들은 공장 내에서도 단합이  
잘되기로 유명하다. 특히 분기마다  
진행되는 체육대회 때는 협동심이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조원들이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매년 초에 다 같이 새해맞이 얼음물 입수를  
합니다. 올해도 창녕 화왕산 기슭의 어느  
계곡에 다녀왔어요. 온몸이 시리지만  
팀원들의 사기와 단합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아프지 않아요. 입수 때는 죽을 것 같은데  
1년 동안 감기도 걸리지 않고 좋습니다.”  
단합이 잘되니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목표량 이상의 생산을  
달성하거나 완제품을 볼 때, 그 타이어를  
본인 차에 장착할 때 얻는 성취감은 실로  
어마어마하단다.  
“누구나 그렇듯 일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동료들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소주 한잔하면서 털어버리고,  
그동안 쌓아둔 추억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다 보면 금세 풀리지요.”  
이 여섯 명의 사나이는 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한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이들의 활기 가득한 에너지가  
창녕공장 중심에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❷

### 후 기

막걸리 빚는 과정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집에서도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직접 만든 막걸리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새로운 걸 만들어보고 싶네요!





입사 6년 차 사우들의

# 우리들의 넥센타이어

“이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2011년 2월 7일,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난 6년 차 사우들. 이렇게 여럿이  
모인 게 거의 1년 만이라 서로의  
근황을 묻고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기에 바쁘다.  
마음 같아선 “편하게 노세요!” 하며  
취재를 피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있나. 수다 폭풍 속을 비집고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클 이진우 사진 이용관

**에디터:** 안녕하세요~ 이 동기가 특히 돈독하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다들 정말 친하신 것 같아 제가 다 기분  
이 좋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모인 거예요?

**김수천:** 김태홍 회장이 작년에 연애에 빠져 있어서 모임 주조에  
소홀했지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결혼했으니 다행이었어요!

**에디터:** 5년 전 처음 대면하던 날, 첫인상이 궁금해요.

**강영지:** 김태홍 사우가 연수원에서 그렇게 호피 바지를 입고 다  
녔어요. 김성훈 사우는 맨날 뛰쳐나가서 운동하고 있고. 몸 만드  
는 다고.

**강영한:** 영지는 핏덩이였지. 놀려서 울린 적도 있었는데. 진아는  
아직도 우리 보고 아저씨래. ‘오빠’라고 불러본 적 딱 한 번이에요.  
야,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오빠라 할 때도 됐잖아. 오빠라 해,  
이제.

**김수천:** 어! 나도 아저씨만 천 번은 들었다.

**송진아:** 전 친오빠도 없고, 학창 시절부터 오빠라는 단어를 쓸 일  
이 별로 없어서 그 단어가 뭔가 너무... 어색해요. 하하하.

**에디터:** 몇 마디 안 나눴는데도 서로 참 가까워 보여요. 원래부  
터 이렇게 친했나요?

**김태홍:** 입사하고 한 3년 동안은 점심시간마다 회사 매점에서  
모였어요. 동기들이랑 만나는 게 재밌어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  
다고 하더라고요.

**에디터:** 신입 때, 어리바리했을 때 업무는 어떻게든 하셨는지. 실  
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 다 그러니까.

**일동:** (침묵)

**최황목:** 실수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다. 다 자기는 잘한다고~

**일동:** 으하하...



**에디터:** 실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요. 그럼 입사 첫  
해부터 모두가 일 잘한 걸로?

**손준영:** 아! 우리 입사하던 해에 100 대 1을 뚫은 엘리트 신입사원  
이라고 사보에 실렸어요. 그걸 그대로! 이들은 여전히 엘리트더라~  
이렇게 정리하죠.

**에디터:** 하하. 알겠습니다. 입사하던 당시와 지금, 넥센타이어는  
어떻게 다른가요?

**박대경:** 그 당시에는 넥센 다닌다고 하면 게임 회사냐고 묻는 사  
람도 많았어요. 비슷한 이름의 회사랑 헷갈려서 그랬겠죠. 하지만  
지금은 넥센타이어를 분명히 알아요. 넥센히어로즈의 영향도 있겠  
지만 아무래도 회사가 많이 성장했으니까요.

**김태홍:** 맞아, 지금은 입사하고 싶다며 공채 안 뜨냐고 묻는 친구  
나 후배가 많아요. 그럴 땐 기분 좋죠. 뿌듯하고.

**김성훈:** 그러고 보면 시간 정말 많이 흘렀어.

**김수천:** 초창기엔 우리끼리 막 놀러 댕기고, 철도 없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  
며 살아가게 되니까 모든 과정을 서로가 봐온 거예요. 그래서 동  
기들에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김효중:** 그래그래, 총각 때는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는 말도 하곤 했  
지만 지금은 가장이니까 ‘아, 열심히 해야겠다’ 싶기도 하고요.



**최황목:** 학창 시절 지나고 사회 초년생이 되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장 단계를 함께 밟고 있는 거죠. 사회인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걸 지켜보고 서로 응원하면서요.

**김수천:** 그러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 커가며 같이 어울리면 지금보다 더 끈끈해질 테지.

**박대경:** 그러니까, 과거도 물론 좋았지만,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사이예요, 우리는.

**에디터:** 좋네요. 저도 갑자기 동기들이 보고 싶네요... 하하. 오랜 시간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정말 용 됐더' 하는 사우 있나요?

**강영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김수천이요, 도시적인 걸 추구하는 시골 남자인데 와이프 잘 만나서 용 됐어요. 예쁜 동기랑 결혼하 더니 용 됐어.

**김수천:** 나도 내가 결혼할 줄 몰랐는데 동기랑... 아, 우리 동기 모임에서 세 쌍의 부부가 탄생했어요. 자주 보다 보니 매력을 느꼈는지. 하하하~

**강영한:** 너는 정(情)이지!(ㅋㅋ) 정말 쿨카였는데. 얘기 들어주고 고민 나누다가 정이 든 거야, 이걸. 그 동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김수천이 다 제치고 승리했어요.

**김수천:** 그래! 와이프가 나 만나준 걸로. 오늘 와이프도 정말 오고 싶어 했는데 아이 때문에 못 왔어요.

**에디터:** 아우, 오늘 흥미진진하네요. 지면이 한 8p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김효중:** 우리 동기들이 사내 여러 분야에 퍼져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업무적인 건 물론이고, 회사생활에 지칠 때도 힘을 얻으니까. 우리가 회사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까지 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강영한:** 그렇지.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김수천:** 저에겐 넥센타이어 의미가 좀 남다른 편이에요. 소중한 와이프를 얻었고, 우리 동기들 외에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경제력 타지는 데 도움이 된 건 물론이고요.(ㅋㅋ) 넥센타이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김철민:** 오랜만에 모임 나왔는데 정말 반갑네요. 처음 입사해서 투를 때 형들이 많이 챙겨줬는데... 지금은 각자 바빠 이전처럼 챙기기 힘든 상황이지만 종종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최황목:** 다들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건강 유지하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 난 너희가 다 건강하길 바란다. 정말로~

**원창연:** 이렇게 다들 만나니까 연수 받을 때 생각도 나네. 벌써 6년 차예요. '2015년에 대리 되다, 그날이 오냐' 했는데 벌써 왔잖아요. 지금까지 각자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앞으로도 더 잘 버텨서 회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정:** 사랑합니다.

**강영한:** 아, 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말 하라고 지금 밥 먹는 줄 아냐.(ㅋㅋㅋ)

**조민호:** 우리가 워낙 표현에는 인색해. 푸하하.

**송진아:** 저희 동기들은 오래도록 얼굴 보면서도 얼굴 붉히지 않는 사이인 것 같아요. 늘 웃으며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성훈:** 솔직히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든 적도 많았는데 동기들 덕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다른 부서에 있는 동기들과 통

화하면서 일도 돕고, 힘이 되어주니까 든든하죠. 오래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도 자주 만들어야겠네요.

**손준영:** 맞아 맞아, 자주 봐요, 우리.

**김수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른셋에 강가를 갔는데 말이죠. 지금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결혼하지 않은 동기 형들, 독거노인 되기 전에 어서 장가가길 바랍니다.㉟

자, 신입사원 때 사보에 실리셨다 하여 에디터가 하트를 떨어보았습니다. 정말 풋풋하네요. 😊







## 업무상 메일, SNS 예절 알아보기

친구들과의 대화에선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친구 사이니까. 하지만 직장인으로서의 당신에게는 의사소통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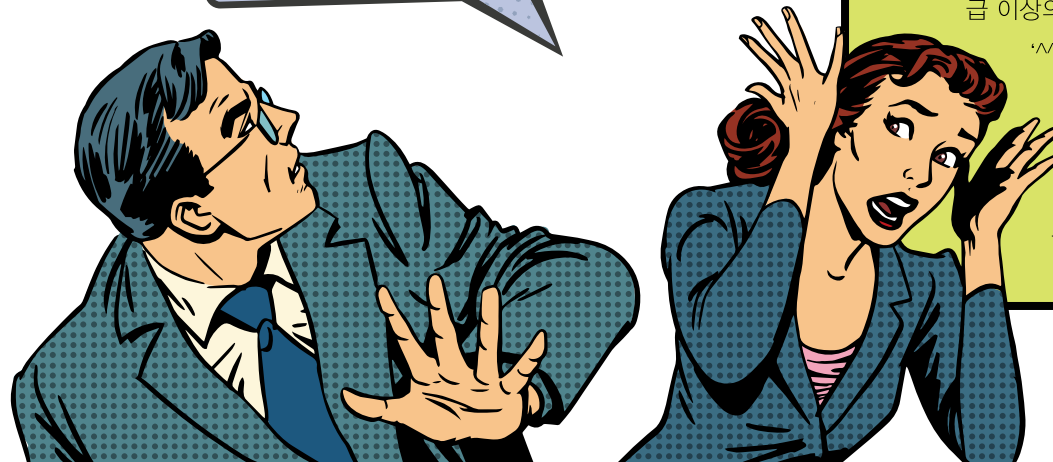
글 우용표(더 코칭 & 컴퍼니 대표)

필자가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 가끔 상사에게 한 줄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지시하는 이메일을 받곤 했다. 팀장님의 어명이 담긴 메일을 조심스레 열어보면 ‘참조요’, ‘조치요’, ‘확인요’ 등의 말이 적혀 있었다. 그땐 미처 몰랐다. 맨 끝의 ‘요’가 ‘~하세요’의 ‘요’가 아니라 ‘필요하다’는 ‘要(요)’였다는 것을.

시대가 흘러 이제는 상사가 신입사원의 메일을 열어보면서 어리둥절 당황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한다. 너무나도 짧고 강렬하게 암호화된 단어 때문이다. 무슨 뜻이냐고 묻기에는 좀 쑥스러워 답을 알 수 없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각자 본인의 말과 글에 묻어 있는 품격을 점검해보기로 하자. 물론 이러한 품격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이 잡아가거나 재판에 넘기진 않는다. 다만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질 뿐이다. 이왕이면 정갈한 이미지로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시작해보자. 손가락 끝에서 풍기는 나의 품격, 셀프 점검.

에그머니냐..



### E-Mail

## 말 좀 줄이지 말아줄래?

어느 대학교수가 말했다. 학점 정정 기간에 어느 학생으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메일 제목이 “OO학과 홍길동입니다. 학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였다고. 그런데 메일을 열어보니 내용은 없고 달랑 ‘제공내’라고만 쓰여 있더라. 뭔가 잘못됐나 싶어 다시 열어봐도 보이는 건 ‘제공내’뿐. 나중에 대학원생에게 물어보고야 제공내가 ‘제목이 곧 내용’이라는 뜻을 알았다. 그 교수는 과연 학점을 재검토했을까?

어느 기업 부장의 또 다른 말이다. 신입사원이 보낸 이메일을 보면 제목이나 내용에 ‘^^’, ‘ㅠㅠ’와 같은 것이 많다고. 짜증이 폭발할 지경이지만 화는 못 내겠고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한단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이 그대로 잘 받아들였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 내가 ‘아’라고 하면 상대방도 ‘아’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부장

급 이상의 어느 정도 연차가 된 분들에게 ‘제공내’,

‘^^’와 같은 것은 암호와도 같다. 상상해보자.

내가 우리 팀에 보낸 이메일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부장님이 메일을 상무님과 사장님께 전달하는데 내용 중간중간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서 일하기 핵노잼인데ㅠㅠ 제가 그 경쟁사를 극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하. 유첨된 짤 참조 요망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면 그 이메일은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벌써 민망하다.)

스피드가 중요한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같은 뜻을 가진 말을 짧게 줄여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기술도 물론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참조 요망’(=F.Y.I: For Your Information), ‘최대한 빨리’(=A.S.A.P: As Soon As Possible) 등은 흔히 사용되며 그 의미가 잘 알려진 것들이다. 하지만 ‘제공내’, ‘핵노잼’, ‘극딜’ 같은 용어는 친구 사이에서의 의미 전달엔 유용할지 모르나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부적절하다. 동료, 선배, 상사가 친구는 아니지 않은가. 냉정하게 생각하라. 품격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LOL(롤)의 용어는 게임 세계에서만 사용하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자.

### VOCA

- **제공내** 제목이 곧 내용이라는 뜻의 줄임말.
- **극딜** 한자어 극(極)과 게임 용어 Damage Dealing의 합성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핵노잼** 강조를 의미하는 핵(Nuclear)+No+재미(잼)의 3개 단어가 합쳐진 말. 매우 재미없다는 뜻이다. (반대말로는 예스잼, 꿀잼이 있다.)
- **짤방** ‘짤림 방지’를 뜻하는 말로 그림 파일(JPG)을 가리킨다.



## 불을 다루듯 조심조심!

SNS. 참으로 많은 종류와 서비스가 있다. 자유롭게 자신의 일상 생활을 기록하고 친구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SNS는 우정도 확인하고 인맥도 넓혀주는(게다가 무료이기까지 한) 고마운 서비스다. 그러나 자칫 잘못 활용했다간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욕 한마디 썼다가도 고소당하고 벌금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마치 불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SNS를 다루도록 하자.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거리를 조절하면서 말이다.

### SNS 주의 사항

#### 1.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자

SNS에 여당이나 야당을 지지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글을 퍼다 옮기는 것, 정치인이 민심을 읽어나가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측면에선 좋은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늘 정치적인 발언을 조심하고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정치라는 것이 참 묘해서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를 경우 친구 사이임에도 얼굴 붉히는 언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른신과 젊은이가 서로 미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말 정치에 관심 있다면 투표하는 날 조용히 자신의 견해를 '표'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이라는 것,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 2. 성(性)적 취향은 제발 Don't Ask, Don't Tell!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여놓는 것,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는 멋진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직 성(性)적 취향은 사회에서 민감하다면 민감하게 여겨지는 사안이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므로 굳이 SNS를 통해 광고할 필요까진 없다. 웬만하면 서로 묻지 말고 말하지도 말자.

#### 3. 회사 사람을 모두 사랑하자

물론 모두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날 수많은 상태 메시지에는 '말 걸지 마', '걸리면 다 죽어'와 같은 살벌한 말이 넘쳐난다. 아마도 회의 시간에 상사로부터 심하게 꾸중을 들었거나 실수가 발견되어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상사한테 혼나자마자 자리에 와서 자신의 상태 메시지를 '하, 기분 안 좋음'으로 바꾼다면 어떨까? 눈치 있는 상사라면 금방 알아챌 것이다. 그리고는 다음번에는 더욱 심한 극딜(뜻은 앞의 VOCA 참고)을 할 것이다. 상태 메시지를 바꿀 생각 자체를 못할 정도로 말이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SNS에 은근슬쩍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써보는 건 어떨까. 페이지를 보고 감동한 그가 당신을 호의적으로 대할지도 모르니 말이다. 정말 인생 막장인 사람이 아닌 이상 자신을 좋게 이야기해주는 데 누가 화를 내거나 보복하겠는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은 옛날 속담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SNS에도 적용되는 귀한 지혜이기도 하다. 못하겠다면 아예 쓰지 마라.

### 모바일 메신저

## 귀엽지 말자 & 중요 자료는 메일로 따로!

부서별 단체 카톡방(이하 단톡방)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특히 이모티콘, 웃는 모습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말 그대로 오만 가지 표정과 이모티콘이 대화창에 도배된다. 회사 생활 하면서 너무 귀엽게 살지는 않아도 된다. 메신저의 특성상 오가는 내용이 너무 엄격하고 진지할 필요는 없지만 단톡방 구성원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모티콘은 친구와 연인에게, 부서 사람들에게는 가급적 텍스트 위주로 글자만 찍어서 보내도록 하자.

또 하나의 주의 사항이 있으니 바로 중요 자료는 메일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다. 카톡은 사진을 찍어 바로 올리거나 급한 공지를 하는 경우에 유용하지만 자료를 모두 저장해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서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카톡으로 보내고 메일로도 다시 정리해서 보내도록 하자. "그거 옛날에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라는 맥 빠지는 이야기가 서로 오가지 않도록.⑩





## 이 구역의 모든 매너 남녀를 위한

## 푸푸리

밖에서 나의 냄새가 신경 쓰여 큰 일을 못 보는 당신, 이제는 마음 편하게 화장실에 가도 좋다. 변기에 앉기 전 푸푸리를 가볍게 흔든 후 변기 물에 3~5번 뿌려주기만 하면 끝! 한두 번의 분사만으로 물에 천연 에센셜 오일막이 형성돼 부끄러운 냄새는 차단하고 향기만 남는다. 미국 유튜브에 공개된 '여자는 똥을 싸지 않는다(Girls Don't Poop)'라는 이 제품의 홍보 동영상은 3,5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 깔끔함을 더하자!

## 넥센인의 잇 아이템

집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직장인. 동료와 상사 그리고 거래처 직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평소 청결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깔끔, 청결 아이템을 소개한다.

글 김지혜 **자료협조** (주)실란트로, (주)매직랩, 네오브리즈, 바티스트, 슈퍼클린, HY STYLE



## 매일 아침 상쾌한 입속

## 덴티스테 나이트타임 치약

저녁에 양치를 꼼꼼하게 하고 자도 어김없이 고약한 입 냄새로 아침을 맞이한다. 잠들기 전 덴티스테를 사용한다면 이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다. 천연 성분으로 자극 없이 상쾌함을 주는 덴티스테는 치아 건강에 좋은 허브 추출물을 함유하여 입 냄새의 원인을 잡아준다. 양치 후, '덴티스테 내추럴 오랄린스'로 마무리하면 금상첨화!



## 먼지가 낀 틈새도 청소해주는

## 젤리 클리너

당신이 쓰고 있는 컴퓨터 본체, 키보드, 사무실 전화기와 팩스를 살펴보자. 틈새마다 낀 먼지에 허를 내두르게 될 것이다. 이럴 땐 자유자재로 변형 가능한 젤리 클리너로 틈새를 콕콕 눌러주면 말끔히 해결된다. 뿐만 아니라 말랑말랑한 촉감은 어린 시절 찰흙 놀이를 생각나도록 해 청소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아무리 주물러도 미끌거림이나 끈적임이 없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봄호 사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사우 중 추첨을 통해 '주목 아이템'에서 선정된 제품 중 덴티스테 치약, 티타니아 풋 스프레이, 푸푸리, 퍼지브러쉬, 바티스트 드라이 샴푸를 선물로 드립니다! (개별 연락 후 랜덤 발송됩니다)

## 껌처럼 씹는 칫솔

## 퍼지브러쉬

계속되는 업무에 이를 제때 닦지 못한다면 가글과 치약 대신 간편한 '씹는 칫솔'을 사용해보자. 물과 치약 없이 양치할 수 있는 퍼지브러쉬는 포켓 크기로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캡슐 안에 있는 퍼지브러쉬를 꺼내 입에 넣고 씹으면 된다. 혀를 이용해 퍼지브러쉬를 움직여 어느 정도 씹다가 버리면 간단하게 양치를 마칠 수 있다.



## 물 없이도 머리 감는

## 바티스트 드라이 샴푸

물 없이 사용이 가능한 드라이 샴푸는 시간 절약을 위한 휴대용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이 샴푸는 귀차니스트만을 위한 아이템은 아니다. 꽉 막힌 사무실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머리카락이 볼륨 없이 축 처질 때, 지성 두피라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기 힘들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 간단히 뿌린 후 털어주기만 하면 파우더 성분이 머리카락의 유분기 제거를 도우니, 기름진 머리카락, 이젠 걱정하지 말자.



## 향긋하고 청결한 발을 위한

## 티타니아 풋 스프레이, 샴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슬슬 땀구멍이 열리고 있을 것이다. 이때마다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발 냄새다. 티타니아 풋 스프레이는 신발을 벗는 장소에서 식사할 때 빠르게 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맨발 또는 양말이나 스타킹 위에 가볍게 뿌려주기만 하면 된다. 액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젖을 염려가 없으며 끈적임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풋 샴푸는 깨끗한 세정은 물론 거친 발을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일석이조의 제품이다.⑩



춤을 추듯 변화무쌍한 하늘

# 경남 남해

가슴이 답답할 때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지 않은가. 뻥뻥한 빌딩으로 가려진  
하늘을 마주하면 기분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땐 땡 뚫린 하늘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남해로 떠나보자. 낮에는 청명한 하늘이, 해가 지면 붉게 물드는 노을과  
반짝반짝 빛나는 야경이 당신을 반겨줄 것이다. 황홀한 비경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느 곳에서든 작품이 탄생한다.

글 / 사진 박민우(여행 전문 기자)





1



2

1 상주 은모래비치  
2 장항마을 광양만 일몰  
3 삼천포대교 야경



3

### 백사장을 품은 호수, 상주 은모래비치

독일마을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상주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운 해안도로로 손꼽히는 곳이다. ‘송정 솔바람해변’을 지나 고갯길을 내려가다 보면 상주 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회전 구간을 만난다. 이곳에 잠시 차를 세우고 촬영을 해보자. 단, 주행 방향과 역방향이니 정차할 때 맞은편 차량에 주의해야 한다. 가드레일 넘어 수풀이 우거진 아래로 ‘상주 은모래비치’의 모습이 마치 호수와의 같이 둥그란 모양을 하고 있다. 일몰 때 촬영하면 색다른 풍경을 담을 수 있다.

### 남해 출사의 화룡점정, 장항마을 광양만 일몰

남해 출사의 대미를 여기에서 장식할 수 있다. 여수 엑스포해양공원을 마주 보고 있는 ‘장항마을’은 평범한 어촌 마을이다. 하지만 일몰 때가 되면 아름다운 풍경으로 탈바꿈한다. 장항마을 해안가 ‘해수수영장’ 앞이나 ‘장항교회’ 앞에서 촬영해도 좋고, 숙박할 예정이라면 마을 뒤편 산 중턱에 있는 ‘남해비경펜션’에 머물자. 펜션 테라스나 마당에서 촬영하면 멋진 일몰을 담을 수 있다.

### 알록달록 화려한 삼천포대교 야경

남해 초입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삼천포대교’의 화려한 조명은 시시각각 색을 달리하며 그 자태를 뽐낸다. 다리 아래 ‘삼천포대교 공원’으로 내려가면 해안도로가 나오는데, 이 해안도로를 따라 나무로 된 ‘전망 데크’까지가 삼천포대교 야경을 촬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조리개를 F8~F11 정도로 조이고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여 촬영하면 유속이 빨라 움직이는 바닷물을 부드럽게 촬영할 수 있다. 조명 색이 자주 바뀌므로 여러 컷 촬영해보는 것이 좋다.



독일로의 순간 이동, 이국적인 독일마을

창선교에서 남쪽으로 20여 분, 산비탈에 이국적인 마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파독 광부들이 돌아와 마을을 형성한 ‘독일마을’이다. 모든 집이 흰 벽에 빨간 지붕으로 되어 있어 이채로운 풍경을 연출한다. 워낙 유명세를 타고 있어 주말이면 차와 사람이 뒤엉키기 십상이므로 가급적이면 차는 독일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원예예술촌’ 무료 주차장에 세운 후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관람료 어른 5천 원, 청소년 3천 원, 어린이 2천 원)을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다.

창선교 위에서 만나는 이색 풍경, 죽방렴

창선교를 지나오는 길 양옆에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이상한 구조물은 교과서에서나 봤을 법한 ‘죽방렴’이다. 멀치로 유명한 남해에서도 죽방렴에서 잡은 ‘죽방멸치’는 전국 최고로 친다. 창선교 아래 지족마을에 차를 세우고 다시 창선교 위로 가자. 죽방렴과 주변 경관을 한 컷에 담을 수 있는 포인트는 창선교 위다. 근처 ‘지족갯마을’ 방향으로 차를 이동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죽방렴을 볼 수 있다.

남해를 품은 도량, 금산 보리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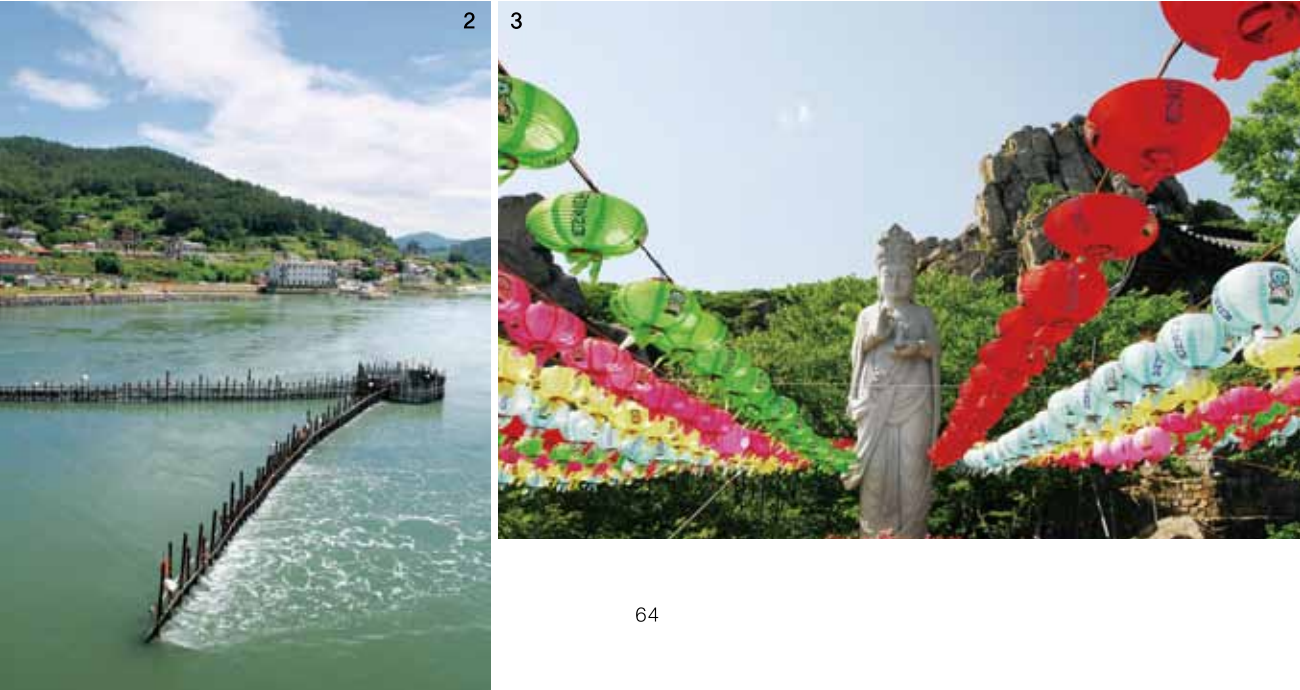
보리암은 평상시 산 아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야 하지만 새벽에 가면 산 위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리암에서는 상주 해수욕장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시원한 풍경을 담을 수 있다. 양양 낙산사, 강화 보문사와 더불어 3대 기도처로 알려진 보리암의 인자한 ‘해수관음상’도 촬영해보자.📷



1 독일마을 2 죽방렴 3 금산 보리암 해수관음상

주변 여행지

창선 왕후박나무 천연기념물 제299호로 수령이 500년이다. 냉천어촌체험마을 거울에는 낙지, 여름에는 문어를 잡을 수 있다. 해오름예술촌 폐교를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탈바꿈한 곳.



촬영 Tip



야경 촬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야경을 촬영할 때에는 낮은 감도(ISO-100)에 조리개를 조이고 ‘장노출(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여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삼각대는 필수. 하지만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본 순간 ‘헉!’ 소리 난 적이 있을 것이다. 하늘이 온통 까맣거나 노이즈가 잔뜩 낀 사진이 찍혀 있었을 테니까. 야경 촬영 시 가장 유의할 것은 촬영 시점이다. ‘일몰 후 30분!’ 이 시간이 야경 촬영에서의 ‘골든타임’이다. 늦어도 1시간 안에 촬영하면 하늘을 파랗게 담을 수 있지만 골든타임을 넘기면 포기해야 한다.



자동차 개성 시대

# 튜닝의 모든 것

자동차 튜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만의 차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최적화된 차를 만들고 싶은 건 드라이버들의 꿈일 것. 지금 타고 있는 차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편의 장치나 주행 장치, 제동 장치, 외관 등에 새로운 변화를 줘보자. 단, 가장 중요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개개인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바꿔야 한다.

글 우상준(경영관리팀)

## 흡기/배기

자동차 흡기와 배기 튜닝은 엔진이 필요로 하는 공기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엔진에서 연소한 배기가스의 원활한 배출을 돕는다. 또 차량의 연비와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기음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흡기 튜닝에는 공기 흐름이 원활한 튜닝용 에어 필터의 교체와 에어 인테이크 라인 재구성을 통한 오픈형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공기 흡입량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흡기음이 커지고 연료 소모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방출량을 늘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

는 것이다. 배기 튜닝은 순정 배기 시스템의 소음 및 배압 조절을 통해 엔진 출력의 일부가 소모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 배기 매니폴드, 미드머플러와 엔드 머플러 교체, 배기 파이프를 재구성함으로써 배기 저항을 줄여 연비 및 출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머플러는 연소실에서 폭발을 거쳐 배기가스와 열이 방출되며 이로써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온도를 낮추며 배기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배기음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 배기 시스템에서는 브랜드마다 특색 있는 음색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물론 검증된 제품을 장착하고 구조변경 승인을 거쳐 합법적인 튜닝을 해야 한다. 일정 소음 수준(105 데시벨)을 넘을 시 구조변경 및 정기 검사를 할 수 없다. 또 검증되지 않은 제품과 흡기와 배기의 부조화는 차량의 배기 압력에 영향을 주어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업체에 의뢰해 장착하는 것이 좋다.





## 서스펜션

서스펜션도 튜닝 인기 품목 중 하나다. 순정 서스펜션도 회사마다 특색이 있으나 자신이 ‘꼭’ 원하는 승차감을 찾기 위해 서스펜션 튜닝을 한다. 서스펜션은 차체와 타이어를 잇는 완충 장치로 타이어가 노면에 잘 붙게 해 안정적인 운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종류에는 튜닝용 코일 스프링, 쇼크업소버(댐퍼)가 조합이 된 일체형 서스펜션, 스프링 대신 공기압을 통해 차고 및 승차감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 운전자는 제품과 단계 선택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승차감을 조절할 수 있으며, 구조변경 신청 없이 튜닝이 가능하다. 단, 차량 정기 검사 시 허용되는 최저 지상고는 120mm이다.

## 휠

휠은 자동차의 외관뿐 아니라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다. 최근에는 순정으로 장착된 휠의 인치 수가 크고 디자인도 다양해져 드레스업 효과를 주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독특한 튜닝 휠을 장착하여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튜닝을 위한 휠과 타이어를 선택할 때는 인치 및 오프셋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회사마다 적용하는 PCD(Pitch Circle Diameter-휠 너트 구멍과 구멍 간의 간격)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벼운 소재의 경량 휠은 차량의 무게를 감소시켜 연비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차량 크기나 배기량에 비해 과도한 세팅은 사고 위험을 높이니 주의해야 한다.

과도한 튜닝이나 차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개조는 성능 저하 및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튜닝 솜을 통하거나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AVN 튜닝

좀 더 즐거운 드라이브를 돕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악이다.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운전자들이 점차 많아지는 만큼 오디오 튜닝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고급 차량에 장착된 최상급의 오디오 시스템과 같이 일반 차량에도 고급 사양의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애프터 마켓 제품 중 데크(헤드유닛), 스피커, 우퍼 그리고 앰프 등의 업그레이드로 음질을 개선할 수 있다. 오디오 튜닝 인기와 더불어 차량 내 비디오 시스템 튜닝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내비게이션 매립과 DVD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은 순정 내비게이션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고, 헤드레스트 뒤쪽에 후방 모니터 설치로 뒷좌석 탑승자도 배려할 수 있다.

## 터보차저(과급기) 튜닝

터보차저 튜닝은 애프터 마켓 제품으로도 엔진을 교체하지 않고 출력을 올리는 방법이다. 터보차저를 장착하면 배기가스의 압력이 터빈(과급장치)을 작동시켜 강하게 압축된 공기를 빨아들인다. 그 공기는 인터쿨러를 통해 냉각되며 엔진의 연소실에서 강한 폭발을 일으켜 출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엔진 배기량을 낮춰 연비 개선의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엔진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낮은 RPM(분당 엔진 회전 수)에서는 배기가스의 압력이 낮아 터빈을 작동시키는 힘이 부족해 터보 래그(터빈이 일정 회전에 도달하는 시간의 지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최근에는 가변 제어식 터보(VGT) 방식으로 터보 래그 문제를 보완하는 추세다.<sup>①</sup>

※ 차량을 개성 있게 꾸미는 자동차 튜닝으로 성능 향상 등을 꾀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튜닝이나 차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개조는 성능 저하 및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튜닝 솜을 통하거나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NEXEN COOK

## 달걀

집 앞 슈퍼에만 나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  
단백질과 칼슘, 인, 철, 칼륨, 비타민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해 완전식품이라고 불린다.  
달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식사가 되는데,  
간단하게는 프라이부터 달걀찜, 예그 베네딕트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달걀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글 김지혜





**달걀 요리 레시피**

달걀은 삶거나, 부치거나, 거품을 내거나 그 조리법에 따라 맛도 모양도 천차만별이다. '오늘은 뭘 먹지?' 고민하는 당신, 쉽고 간편한 달걀 요리로 맛있는 한 끼를 해결해보자.

자료협조 리스컴 <달걀 하나로>



## 스크램블드 에그

### 요리 재료

달걀 3개, 식용유·소금·후춧가루 조금씩

### 요리 과정

- 1 달걀을 젓가락으로 세차게 저어 곱게 푼다.
- 2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풀어놓은 달걀을 붓고 불을 약하게 줄여 10초 정도 그대로 둔다.
- 3 젓가락으로 재빨리 휘저어가며 달걀을 익힌다.
- 4 달걀이 부드러운 상태로 익으면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간한 뒤 불을 끈다.

## 프렌치토스트 샌드위치

### 요리 재료

달걀 2개, 우유 1/4컵, 설탕 1/2큰술, 계핏가루 조금, 식빵 베이컨 4장씩, 슬라이스 체다치즈 2장, 달걀물, 식용유 조금, 슈거 파우더 적당량

### 요리 과정

- 1 곱게 풀어 체에 내린 달걀에 우유, 설탕, 계핏가루를 섞는다.
- 2 식빵 위에 치즈와 구운 베이컨을 올리고 다른 식빵으로 덮는다.
- 3 ②의 샌드위치를 달걀물에 담가 앞뒤로 충분히 적신다.
- 4 팬에 기름을 두르고 ③의 샌드위치를 올려 약한 불에서 노릇하게 굽는다.
- 5 구운 빵을 4등분으로 자르고 슈거 파우더를 뿌린다.

### TIP

식빵 안쪽에 크림치즈를 발라서 구워도 맛있다. 메이플 시럽을 곁들이면 잘 어울린다.

## 오믈렛

### 요리 재료

달걀 3개, 식용유 적당량, 소금·후춧가루 조금씩

### 요리 과정

- 1 달걀을 곱게 풀어 체에 한 번 내린다.
- 2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풀어놓은 달걀을 붓는다. 불을 약하게 줄인 뒤 젓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재빨리 젓는다.
- 3 팬 한쪽으로 달걀을 모으고 뒤집개로 접어가며 모양을 잡는다.
- 4 뒤집개로 뒤집은 다음 불을 끄고 잠시 그대로 두어 익힌다. 소금, 후춧가루를 곁들여 낸다.

### TIP

오믈렛은 강한 불에서 익히는 것보다 약한 불에서 80~90% 정도만 익혀야 더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

## 떠먹는 에그 피자

### 요리 재료

달걀 3개, 방울토마토 5개, 페퍼로니 5장, 올리브유 조금, 소금·후춧가루 조금씩, 슈레드 모차렐라 치즈 50g, 파슬리 가루 조금

### 요리 과정

- 1 방울토마토는 4등분으로 자르고, 페퍼로니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2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달걀을 깨뜨려 넣은 뒤 노른자를 터트린다.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간한다.
- 3 달걀이 어느 정도 익으면 방울토마토와 페퍼로니를 골고루 올리고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뿌린다. 불을 끄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둔다.
- 4 파슬리 가루를 뿌린다.

### TIP

입맛에 따라 토핑 재료를 달리해도 좋다. 시금치, 양파 등 냉장고 속 재료를 활용해보자.





# 달걀 요리 맛집

맛 좋고 영양 가득한  
달걀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다음 맛집을 주목하자.

사진 수지스, 오빠달걀빵, 레드피쉬,  
장인정신



## 외국인들이 인정하는 맛 수지스

메뉴 오리지날 에그 베네딕트 1만  
6천 원, 에그 플로렌틴 1만 6천 원,  
멕시코 브런치 1만 4천 5백 원,  
덴버 오믈렛 1만 3천 5백 원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134  
문의 02-797-3698  
영업시간  
수지스 델리 카페  
08:00~21:00 / 연중무휴  
수지스 레스토랑  
11:00~22:00 / 주중, 평일  
09:00~22:00 / 주말, 휴일

이태원 한복판에서 뉴욕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 수지스. 2층은 카페로,  
3층은 레스토랑으로 운영되는데 메뉴에 큰 차이는 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브런치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이곳은 2005년 이태원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현재는 여러 지역에 가게를 열며 인기를 얻고 있다.  
달걀의 매력적인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오리지날 에그 베네딕트,  
에그 플로렌틴, 멕시코 브런치, 덴버 오믈렛이 인기를 끌고 있다.

## 결코 평범하지 않은 봉천동 진순자 김밥

메뉴 달걀말이김밥 1천5백 원  
위치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길 14  
문의 02-883-1824 영업시간 24시간 / 일요일 휴무

밥을 어떻게 짓느냐와 속 재료에 따라 색다른 맛을 내는 김밥.  
봉천동 진순자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옛날 분홍 소시지,  
부추, 단무지, 이 세 가지가 끝이다. 김밥의 굵기는 보통  
김밥의 반 정도이며, 이 얇은 김밥을 3줄씩 묶어 판매한다.  
함께 나오는 매콤달콤한 무말랭이 장아찌는 김밥과 조화를  
이루며 입맛을 돋운다.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진 김밥이지만,  
이 맛에 중독된 사람들로 인해 가게 안은 24시간 북적인다.



## 한 끼 식사로 손색없는 오빠달걀빵

메뉴 슈퍼달걀빵 2천 원,  
마요슈퍼달걀빵 2천 원  
위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37  
문의 010-2854-7180  
영업시간 12:00~23:00



소문난 맛집이 많은 숙대 입구. 그중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한 오빠달걀빵은  
여대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맛이 아닐 것이다'라고  
자부하는 이곳은 4년 동안 오직 달걀빵만 개발해 판매하며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 인기 메뉴 슈퍼달걀빵은 사장님의 비법이 담긴 수제 반죽에 달걀,  
햄, 세 종류의 치즈를 넣어 오븐에 구워 완성한다. 최근엔 SNS를 통해 맛을  
궁금해 하는 이들도 많아져 전국 각지에서 택배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 헤어 나올 수 없는 고소함 달걀만두

메뉴 달걀만두 1천 원  
위치 부산시 금정구 서동시장길 42-4  
문의 051-522-9757  
영업시간 11:00~21:00

부산 서동시장의 명물인 달걀만두는 여느 만두와는 달리 만두소가 따로 없다.  
달걀과 당면이 재료의 끝인 이 요리는 주문을 받자마자 즉석에서 조리한다.  
넓고 네모난 무쇠판에 기름을 두른 후 물에 불린 당면을 올리고 그 위에  
달걀물이 골고루 퍼지도록 붓는다. 찰기를 위해 밀가루 반죽을 그 위에 골고루  
뿌리면 완성. 파가 송송 들어간 양념간장을 얹어 먹거나 매콤 달콤한 떡볶이  
소스와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이다.🍯





# 아이의 마음에 ‘똑똑’ 노크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채근하고 다그치기보다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아이는 감정 표현이 서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아이 마음의 문에 조심스레 노크하세요.

글 / 사진 김동권<(아빠와 10분 창의놀이) 저자, 아빠와 함께하는 10분 게임(www.monsterdad.kr) 운영>

## 우리 아이의 이해 가지 않는 행동

아이 방을 만들어줄 때였습니다. 예쁜 커튼도 달고 침대도 들여놓았습니다. 아이도 자기 방이 생겼다고 무척 좋아하며 밤에 곧잘 혼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는 거실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도 아이를 재우느라 거실로 나가 함께 자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저러다 더 커서도 엄마하고만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생겼고, 아이를 억지로 방에 들여보내 혼자 자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잠은 혼자서 잘 드는데, 문제는 잠든 지 한두 시간 만에 갑자기 깨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이 같은 상황이 매일 반복되었고, 저도 아이도 그 이유를 꼭 집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삼촌에게 선물 받은 손바닥만 한 로봇을 침대 옆 책상 위에 세워놓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로봇을 장난감 통에 넣으려고 했죠. 그러자 아이가 “아빠, 그냥 세워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로봇을 세워놓니?”라고 되묻자 아이는 “밤에 잘 때 저를 지켜주니까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인형도 사야겠어요”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끌어안고 잘 수 있을 만큼 큰 강아지 인형을 원

했습니다. 이미 아이 침대에는 물개 인형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는 “물개가 혼자서는 적들을 다 상대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옆방에 부모가 있긴 하지만 혼자서 잘 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다는 것일요. 달력 뒷면에 군인 모자를 쓴 커다란 강아지를 그려 침대 옆 옷장 문에 붙여주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밤새 너를 지켜줄 거야” 하고는요, 침대에서 안고 잘 수 있도록 커다란 강아지 인형도 주문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도 아이는 인형들을 끌어안고 잡니다. 옆에 두는 인형, 머리맡에 두는 인형, 허리에 엮는 인형 등등. 인형들이 많이 배치되면서 자다가 중간에 깨는 습관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부모의 이해로 변하는 아이의 행동

아이의 행동 중 저희 부부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먹는 양도 무척 적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또래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격도 왜소하였죠. ‘어떻게 하면 아이가 밥을 더 많이 먹게 될까’는 저희 부부가 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밥을 한 공기 가득 담으면 반 공기만 먹고, 반 공기만 담으면 그것의 반만 먹고는 멈춥니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아이를 보채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

아이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대화는  
부모와 아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줍니다.

느 날 아이가 밥을 스스로 두 공기나 먹는 것이었습니다. 감격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죠. 그날은 아이가 유소년 야구단 형들과 함께 반나절 야구를 한 날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만 놀던 아이가 밖에서 운동을 몇 시간이나 하니 식욕이 돋았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와 자주 캐치볼을 하며 밖에서 시간을 보냈죠.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 주차장 조명 아래에서 캐치볼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의 식사량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뱃살(?)도 제법 나와 통통한 체격이 되었습니다.

## 관찰과 대화로 좁히는 아이와의 심리적 거리

아이가 좀 더 커서 고학년이 되자 엄마, 아빠 말에 토를 달면서 “왜요?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하고 되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물론 어릴 때도 ‘왜요?’라고 말하긴 했는데 그뻘 ‘사자가 왜요?’, ‘자동차가 왜요?’ 이런 호기심의 ‘왜요’였습니다. 반면 고학년이 되서는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것인지, ‘씻어라’, ‘왜요?’, ‘먹어라’, ‘왜요?’, ‘입어라’, ‘왜요?’ 이렇게 반항기 어린 ‘왜요’를 입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항기에 접어든 아이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게임은 없을까?’ 그래서 ‘왜요?’ 게임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왜 ‘왜요?’ 하고 끊임없이 반항하는지 그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조차 잘 받아들이고자 조금씩 노력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자다가 깨서 울고, 밥을 잘 안 먹고, 이유 없이 반항도 하고, 몇 년간 잘 고쳐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일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고쳐지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계속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부모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대화하다 보면 아이의 행동 뒤에 있는 이유를 하나씩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와 부모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도 조금씩 줄어들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반항기 가득한 아이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게임 ‘왜요?’

묻고 따지면서 하는 스트레스 해소 게임, 공격자는 상대방의 처음 문장에서 최대한 벗어난 질문을 계속 하는데, 이때 “왜~”로 시작해야 한다. 방어자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형식으로 말해야 하며, 화내면 진다. 말문이 막힐 때를 대비해 막장·엄마 개입·애교·실성 등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면 게임을 즐겁게 이어갈 수 있다. 아빠가 시범을 보이는 전반전 공격 후, 아이의 공격이 이뤄지는 후반전이 포인트다. 단, 던지는 농담에 상처받지 말 것. 놀이가 끝난 후에는 서로 포옹한다.

### 〈전반전 아빠 공격〉

**아들** 아빠, 저 대신 숙제 좀 해주세요.

**아빠** 왜 내가 니 숙제를 해야 하는데?

**아들** 전 너무 피곤하니까요.

**아빠** 왜 니가 아빠보다 더 피곤한데?

뭘 했기에?

**아들** 숙제 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피곤해요.

**아빠** 왜 공부하면 피곤한데?

**아들** 공부하면 짜증 나거든요.

**아빠** 왜 니가 짜증 난다고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아들** 아빠, 저한테 맞고 하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막장 카드 사용!)**

**아빠** 왜 내가 너랑 피곤하게 맞짖 떠야 하는데?

**엄마** 당신이 좀 숙제 도와주면 안 돼요?

**(엄마 개입 카드 사용!)**

**아빠** 왜 아이 숙제에 나한테 자꾸

하라고 그래?

**아들** 아빠가 절 낳았으니까 제 숙제를

아빠가 책임지세요.

**아빠** 왜 내가 널 책임져야 하는데?

**아들** 아빠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애교 카드 사용!)**

**아빠** 왜 아들이 아빠 좀 쉬게 해주면 안 되는데?

**아들** 아우~ 좀 짜증 나요, 저는 오늘

선 줄 알아요? **(확 그냥 막 그냥 카드 사용!)**

**아빠** 왜 너랑 나랑 둘 다 쉬면 안 되는

데? 숙제 안 하고 그냥 내일 몸으로 때우면 안 돼?

**아들** 하하하하하하 **(실성 카드 사용!)**

**아빠** 숙제 때려치우고 밥 먹자~

### 〈후반전 아이 공격〉

**아빠** 밥 목자.

**아들** 왜 밥을 먹어야 해요?

**아빠** 먹어야 사니까.

**아들** 왜 살아야 하는데요?

**아빠** 니가 살아야 내 노후가 행복해지니까.

**아들** 왜 내가 아빠 노후를 책임져야

해요?

**아빠** 뒤질래? 밥 먹어라.

**(막장 카드 사용!)**

**아들** 왜 꼭 지금 먹어야 해요?

**아빠** 엄마가 두 번 차리기 힘들니까.

**아들** 왜 두 번 차리면 안 되는데요?

**엄마** 둘 다 굶어. **(엄마 개입 카드 사용!)**

**아들** 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빠** 니가 자꾸 왜라고 하니까.

**아들** 왜 왜라고 하면 안 돼요?

**아빠** 확 그냥 막 그냥 녀석이! 먹어!

**(확 그냥 막 그냥 카드 사용!)**

**아들** 왜 집에서 꼭 먹어야 해요? 나가서 먹으면 안 돼요?

**아빠** 돈 없어. 그냥 집에서 먹어.

**아들** 왜 돈이 없어요?

**아빠** 먹지 마. 대신 니가 돈 벌어와!!!

**아들** 그러죠, 뭐.. 대신 아빠가 저 대신 숙제, 공부하고 엄마한테 야단도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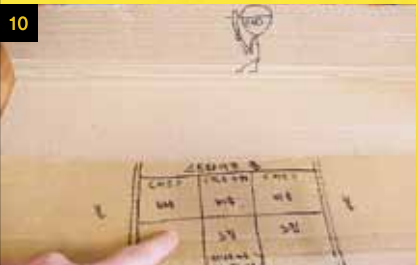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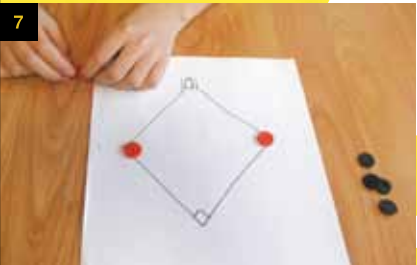
맞으세요.(ㅋㅋㅋ)

## 게임 2

## 투수 타자 심리전 야구 게임



상자를 사이에 두고 아빠는 투수, 아이는 타자가 되어보자. 아빠가 어떤 공을 던질지, 아이가 어떻게 받아칠지를 예상하고 동시에 손가락으로 상자에 표시된 투구 종류 및 공격 방법을 선택하는 간단한 게임. 게임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아빠와 아이의 마음의 거리는 한층 좁혀질 터.



1 골판지를 사진처럼 겹을 따라서 꺾어놓는다.

2 세워진 부분 안쪽에 투수를 그려놓는다.

3 뒷면에 6등분한 스트라이크존과 다양한 투구 종류를 써놓는다.

4 반대쪽 세운 종이 안쪽에는 타자를 그린다.

5 타자를 그린 뒷면에 4등분한 스트라이크존과 다양한 공격 방법을 적어놓는다.

6 세운 부분을 접었을 때 스트라이크존의 가장자리가 서로 맞아야 한다.

7 다른 종이에 출루 현황을 기록한다.

8 돌이 서로 마주 보고 앉아 하나, 둘, 셋을 외치며 동시에 하나를 선택하여 누른다.

(투수가 볼을 던졌는데 타자가 스트라이크존을 휘두르면 헛스윙 스트라이크가 된다. 투수가 우측 커브로 던졌는데 타자가 좌측으로 스윙하면 헛스윙이 되어 스트라이크가 된다. 투수는 볼을 던진 다음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한다. 스트라이크를 던진 다음에는 볼과 스트라이크 중 하나를 선택해 던질 수 있다.)

9 하나 둘 셋을 외쳤는데 타자가 골판지를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스윙하지 않고 기다린 것. "하하~ 공 잘 골라냈네~"

10 스트라이크 세 번 또는 헛스윙 세 번이면 타자는 아웃된다. 공격수 세 명이 아웃이 되면 공격과 수비를 교체한다. 11





제품평가팀 김현수 사우 아들 도영이의 아빠 회사 탐방기  
**나도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어느 토요일 오후,  
 특성연구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품평가팀 김현수 사우,  
 그 뒤로 열한 살 아들 도영이가  
 쫓르르 따라 들어온다.  
 “여기가 아빠 일하는 곳이야”며  
 휘둥그레진 두 눈엔 벌써 호기심이 가득하다.  
 글 이진우 사진 이용관

**아빠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요?**

“안녕하세요!”  
 센터를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아빠의  
 동료들에게 도영이가 힘찬 인사를  
 건넨다. 밖에서 종종 보던 삼촌들을  
 회사에서 만나니 더 반가운 모양이다.  
 평소 차와 타이어에 관심이 많아 아빠가  
 하는 일이 특히나 더 궁금했다는 도영이.  
 아빠의 안내에 따라 특성연구센터를  
 찬찬히 둘러보기로 했다.

“오잉? 아빠,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잖아. 나 관계자 아닌데?”  
 “오늘은 너도 관계자야~”  
 정밀한 장비가 들어서 있는 시험실  
 앞, 빨간 글씨로 쓰인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앞에서 도영이가 잠시 멈칫한다.  
 평소에는 구경하기도 힘든 설비지만  
 오늘날만큼은 아빠 찬스로 특별히  
 가까이서 보고 설명도 들을 수 있다니  
 신이 난 도영이가 발걸음을 재촉한다.  
 센터 곳곳에 층층이 쌓인 타이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도영이. 이견 몇  
 킬로그램이냐며 자기만 한 타이어를  
 들어 올리려다 아빠에게 꿀! 꿀밤을 한  
 대 맞는다.

“아빠, 이건 뭐야? 철이야?”  
 “응, 스틸 코드라고 하는 거야. 타이어를  
 잘라서 이 스틸 코드의 간격이 얼마고,  
 몇 개 있는지 체크하는 거야. 이  
 타이어가 하나 같아 보여도, 여기, 여기  
 고무가 다 달라.”

타이어는 어떻게 자르느냐, 타이어가  
 휠에 밀착되는 원리가 무엇이나,  
 휘몰아치는 도영이의 질문에 김현수





사우의 대답도 바쁘다. 아들의 호기심이 폭발하자 김 사우의 설명도 점점 더 디테일해진다.

“도영이가 어려서부터 타이어를 좋아했어요. 아빠가 타이어 회사 다닌다고 자동차 장난감보다 타이어 모형을 더 자주 가지고 놀더라고요.”

옆에 있는 타이어를 보고 “어, 이거 SUV 타이어네!”라며 단박에 종류까지 꿰뚫던 도영이의 내공은 역시, 괜히 얻어진 게 아닌 듯했다.

### 나도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도영아, 아! 해봐.”

“아! 오, 뭐야. 소리가 이상해~ 이 스펀지 때문에 소리가 안 울리는 거지?”

“그렇지, 여긴 타이어 소음을 체크하는 곳이라 이렇게 방음을 해둔 거야. 이 아래에 있는 엄청 큰 드럼이 돌아가면서 타이어를 굴려. 거기서 나는 소리가 이 마이크로 들어가면서 소음을 체크하는 거야.”

아빠 차를 예로 들어가며 계속되는 김현수 사우의 설명에 도영이 눈이 반짝거린다. 하나를 알려주면 셋을 질문하고, 다섯을 깨닫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낄 새도 없이 도영이의 폭풍 같은 질문은 그침이 없다.

센터를 전체적으로 둘러본 후 이 부자는 김현수 사우가 근무하는 시험실로 향했다. 아빠가



일하는 곳이 제일 궁금하다며 도영이가 정특성시험실로 쑥 들어간다. 아빠 책상에 앉아보기도 하고, 어려운 글씨가 쓰인 시험지를 들여다보며 새삼, 우리 아빠 대단하단다.

김현수 사우가 설비를 작동시키자 도영이가 금세 집중하며 기계의 움직임에 빠져든다. 평소 도로에서 보는 차의 이름을 외우고, 무언가 궁금할 때면 차 밑도 들여다본다던 도영이는 어느새 아빠와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다.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자동차나 타이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분야에선 모든 걸 다 아는 전문가가 될 거예요.”

무뚝뚝한 듯 다정다감한 아빠와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훈훈한 외모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들. 이 부자가 마주 보자마자 웃음이 뺨! 터진다. 아빠와 도영이 중 누가 더 잘생겼느냐는 질문에 “아빠요!” 하며 아빠를 정말 좋아한다는 도영이의 티 없이 맑은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 김현수 사우에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웃음에 보는 사람의 마음마저 따뜻해진다.

취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자 벌써 끝났느냐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도영이. 7년 동안 궁금하던 것을 드디어 풀어서 속이 시원~하단다.

“도영이가 전부터 회사에 오고 싶어 했어요. 연구소라 데리고 올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번 기회에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도영이에게도 저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참 뿌듯합니다.”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 김현수 사우에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오늘 아빠의 일터를 함께 둘러본 시간을 밑거름 삼아 도영이가 아빠의 어깨높이만큼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sup>10</sup>



# ‘어그로를 끌지’ 말고 ‘개이득’으로 나아갈 때

‘어그로를 끌다’, ‘빼박캔트’,  
‘쿠크멘탈’ 등 하루가 멀다고  
생성되는 신조어. 한글  
파괴라고 폄하하기에 앞서,  
유머러스하고 창의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순기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글 임수민(대중문화 칼럼니스트)

## 끊임없이 변하고 재생하는 언어

“너 왜 어그로를 끌고 그래?”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어그레시브(Aggressive, 공격적인)한 사람이란 건가?’하는 생각이 스쳤다. 최근에는 그 말인즉슨 ‘짜증 나는 말이나 행동으로 타인의 관심을 끄는 또는 끌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좀 딱딱거렸기로서니 사람을 ‘관심종자’로 치부를 해? 한참이나 뒤늦은 율화가 치밀면서도, 요즘 세간에 통용되고 있는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한 데 대해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약간의 조바심이 들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말이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어그로를 끌다’라는 말은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에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나 자신과 직결되는 표현으로 듣지 않고서야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말이다. 하지만 게임 대중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통해 그들과도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 역시도 짜증 나는 사람을 가리켜 “재 또 어그로 끌고 있네”라며 혀를 끝끝 차고 있을지 모를 일. 그 순간 그 언어는 나의 언어가 되고

누군가에게 나의 의도는 내가 생각한 애초의 그 의도로서 정확하게 전달되고야 말 것이니 새삼 언어의 끊임없는 재생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어진다.

흑자들은 한글 파괴라고 치부하기도 하지만 신조어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것만큼은 분명하다. 자조 어린 쓴웃음을 유발하는 조어일지라도 그 웃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 공감대는 녹록지 않은 일상에 소소한 활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조어는 매년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 문화 그리고 스마트폰의 확산을 거치면서 신조어는 더 다양해지고 생성, 폐기되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 듯하다. 그 와중에서 살아남아 어느 정도의 생명력을 얻은 것은 그만큼 언어 대중의 공감대가 확보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터. 우선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긴 말을 짧게 축약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최근 신조어의 대세라고 할 수 있다. ‘ㅎㄷㄷ’, ‘ㅇㅇ’, ‘ㄴㄴ’와 같이 초성만 사용해도 의미가 통용되는 신조어뿐만 아니라, ‘생선/생파(생일선물/생일파티)’, ‘문상(문화상품권)’, ‘버카충(버스카드 충전)’처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소 긴 단어의 축약 형태가 주를 이룬다.

## ‘의사 표현’뿐 아니라 ‘의사소통’에 필요한 말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의 경우는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사용하기까지 약간의 배경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빼박캔트’라는 말은 ‘빼도 박도’ + ‘can’t’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 하니, 신조어를 한글 파괴나 올바르게 못한 언어 사용으로 폄하하기에 앞서 유머러스하고 창의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또 멘탈이 약하다는 의미로 ‘유리멘탈’을 사용했다면 요즘은 ‘쿠크멘탈(심장)’ 또는 ‘쿠크깨지다’로 사용한다(‘설명충’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꺼려지지만 여기서의 ‘쿠크’는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먹어보았을 그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과자의 앞 두 글자가 맞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열정페이’나 ‘흙수저, 금수저’, ‘N포세대’와 같은 신조어의 유래를 들여다보면 이 같은 새로운 말의 근원지는 단연 젊은 세대로 보인다. 취업난으로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20대 대다수의 자조 섞인 공감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신조어를 통해 새삼스레 작금의 취업난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의 유희적이고도 세대 간의 공감을 증폭하는 특성에 주목할 것을 권하고 싶다. 만약 지금 회자되는 그리고 앞으로 회자될 수많은 신조어가 ‘내 것’이 아니라면, 즉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라면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이를 먹었다는 의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중 안에서 나 자신의 발언이 그다지 새롭거나 참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더 이상 갖지 못하는 정신적인 ‘노화’, 이른바 ‘꼰대’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인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격식을 차려야 하는 순간순간 ‘개이득’이나 ‘핵소름’을 남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신조어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언어 대중으로부터는 일정 부분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직접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조어는 일정 기간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말이 즐겨 사용되는 현상의 이면을 읽고자 하는 개개인의 노력, 주도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말은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열정페이**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의 청년 노동시장

**인생짤**

그 사람의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잘 나온 사진으로, '짤'은 원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만든 엽기 사진을 뜻하는데, 요즘은 광범위하게 사진이란 뜻으로 사용됨

**핑프**

'핑거 프린세스'의 줄인 말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묻는 '손가락 공주'를 일컬음

**츄데레**

상대방에게 애정이 있지만 겉으로 는 쌀쌀맞게 행동하는 성격을 일컫는 말로 통명스럽다는 '츄츄(ツツン)'과 지나치게 호의적이고 애정이 넘치는 상태인 '데레데레(デレデレ)'의 합성어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내가 아는 신조어**

넥센인들이 아는 신조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트렌드에 민감한 넥센인인 만큼 그 가짓수도 어마어마했다. 그중 넥센인들이 자주 언급한 신조어 몇 가지를 추려 정리해봤다.

**고답이**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사람

**갈비**

'갈수록 비호감'의 줄인 말

**빠박캔트**

빠도 박도 못한다는 말에 'can't'가 더해져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강조

**갤러리맨**

일에 몰두하지 않고 마냥 '개기'는 '샐러리맨'

**이케아세대**

뛰어난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겪는 젊은 세대를 이케아 가구에 빗댄 말<sup>1)</sup>

**빨대족**

30대가 훌쩍 넘었음에도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녀들



오늘도 피로한 당신,  
**번아웃증후군을 아시나요?**

만성피로, 두통, 소화불량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면  
 ‘번아웃증후군’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Burnout’의 사전적 정의는  
 에너지를 소진한다는 뜻으로 그대로 방치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 김지혜 **참고서적** 착한책가게 <번아웃 회사는 나를 다 태워 버리라고 한다>

**나도 혹시 번아웃증후군?** (증상이 심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 전보다 잘 지치고, 일과를 마치면 녹초가 된다.
- 현재 하는 일에 흥미가 없어졌다.
- 일에 대체로 의욕이 없다.
- 매사에 싫증을 잘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몇 시간을 보낸다.
-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한다.
- 약속이나 마감일 등을 잘 잊어버리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 가족, 친구와 떨어져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낸다.
- 평소보다 화를 잘 내고 적대감을 느끼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는 일이 잦다.
- 유머 감각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 예전보다 감기 같은 질병에 자주 걸린다.
- 평상시 머리가 자주 아프다.
- 위장 상태가 나빠다. (위통, 만성 설사, 대장염 등)
- 아침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날이 많다.
- 예전에는 주위에 있어도 신경 쓰이지 않던 사람들을 일부러 피한다.
- 성욕이 감퇴했다.
- 다른 사람에 대해 무신경하다.
- 업무상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거나 무언가를 바꿀 힘이 없다고 느낀다.
- 무슨 일든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 매사에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길다.
- 한계를 느끼고 있거나 기력이 쇠약해져 있다.

출처: MBC 다큐스페셜 <오늘도 피로한 당신, 번아웃>

## 번아웃증후군이란?

번아웃증후군은 과도한 업무에 몰두하는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수면장애, 심리적 회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 번아웃증후군 극복법은?

## 1 일한 만큼 휴식 취하기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어야 한다. 특히 점심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삼가도록 한다. 일은 60~90분 간격으로 나누어 하고, 틈틈이 커피나 물을 마시며 여유를 갖자. 다시 업무에 들어가기 전 스트레칭을 하거나 바깥바람을 쐬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 2 동료와 대화하기

대화는 활력을 얻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동료와 드라마나 최근 관심사 등 업무 이외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유대 관계가 깊어진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3 'NO'라고 말하기

모든 일에 'Yes' 만이 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상황에 맞게 조율할 줄 알아야 한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쌓인다면 점점 지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상황이 어렵다면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청해보도록 하자.

## 4 취미 가지기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취미는 활력소가 되어줄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쌓으면 정서적 교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주고 받을 수 있다. 달리기나 배드민턴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취미로 가진다면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운동 후 기분 좋게 땀을 흘리면 몸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 5 힐링 공간에 방문하기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박물관은 살아 있다'의 '침표의 방'에서는 해먹에 누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압구정동의 '화이트 시크릿'은 소금을 공기 중에 분사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힐링 카페다. 종로구 계동 '낮잠' 카페에는 부족한 수면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먹과 안대가 마련돼 있다. 19

## 결과

**20~30점:** 번아웃증후군을 의심할 단계는 아니다.

**31~45점:**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평균적인 수치다.

46~60점: 번아웃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하는 상태다.

**61~75점:** 번아웃증후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라이프스타일 개선이 필요하다.

**76~90점 :** 당신은 번아웃증후군.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서둘러 증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90점 이상:** 현재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극심한 번아웃 증후군 상태다. 당분간 일보다는 휴식을 취하며 자기 자신을 돌볼 것.



#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를 눌러봐!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 탓에  
입안이 바삭바삭 타들어간다면,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막말자' 때문에  
뒷골이 당겨온다면 우선 숨을  
깊게 고르시기를, 적절한 신체  
부위에 지압을 더한다면 답답하던  
가슴이 조금은 시원해질 것이다.

글 기사윤  
도움말 · 감수 조원희(예신한의원장)

##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장의 부신 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방출된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에 맞서 몸이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외부 자극에 대항할 수 있도록 신체 각 기관으로 많은 혈액을 방출한다. 또 포도당이 뇌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에 적절한 스트레스는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킨다. 하지만 스트레스의 지속적 노출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코르티솔에 의해 지방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과 혈당의 농도가 증가하고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당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인체는 점점 더 인슐린에 둔감하게 되고 인슐린에 저항성을 갖게 되어 결국 당뇨병으로 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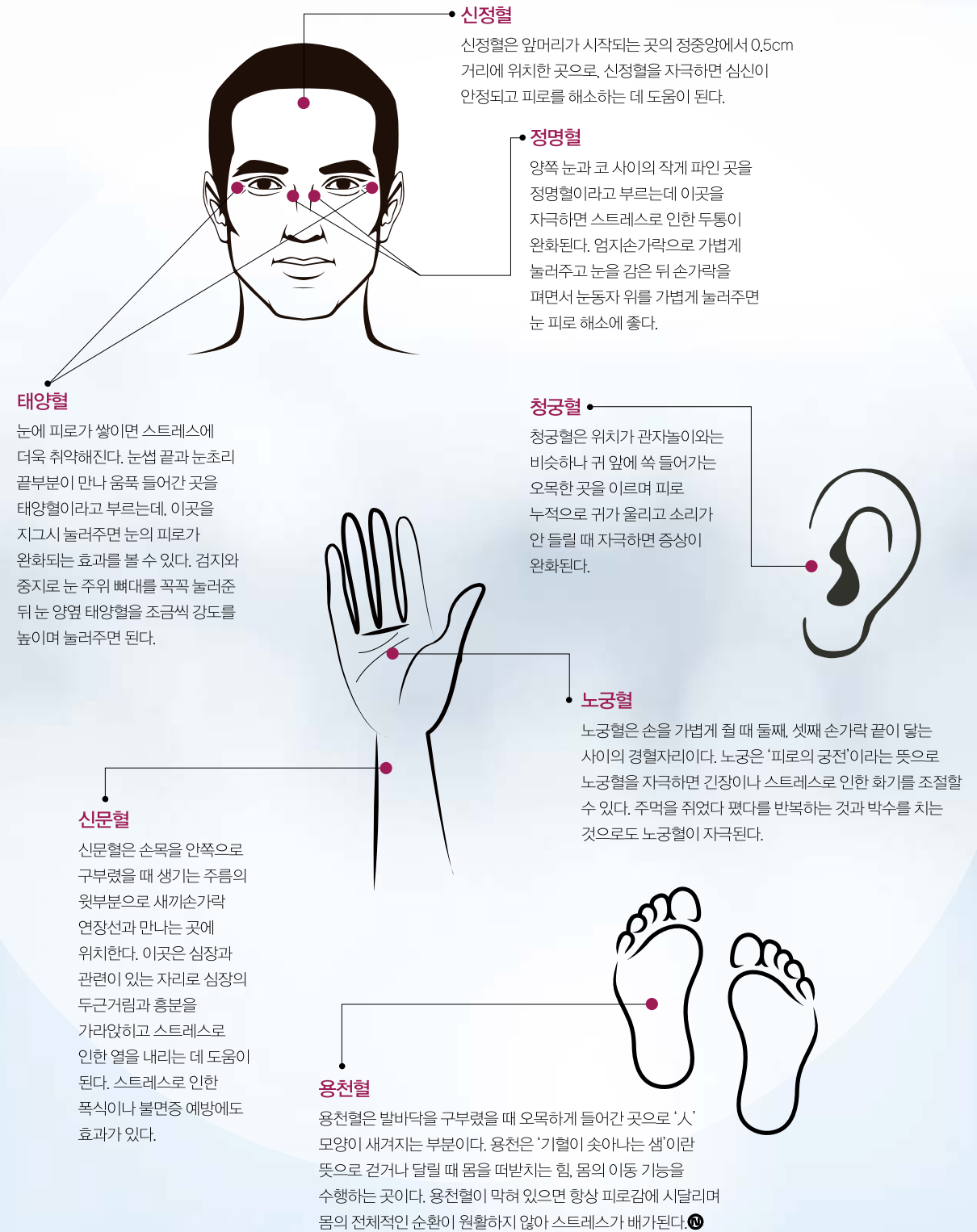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지방산과 당을 혈류 내로 분리시키고 자연지방과 콜레스테롤로 변환시켜 동맥벽에 침착시킨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킨다. 스트레스는 고혈압이나 심장 발작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하는 경혈 지압

한의학에서는 '경락(經絡)'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기(氣)'라는 생명 에너지가 흐른다고 가정했다. '경혈(經穴)'이란 경락 위에 분포된 점으로서 기의 흐름이 막히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장소이다. 쉽게 말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명당에 준하는 자리를 말한다. 병마다 그것을 다스리는 자리가 있다.

뭉친 근육을 주물러서 풀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눈머리 부위를 누르면 눈의 피로가 가시고 눈이 시원해진 느낌이 든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몸에 자극을 주었을 때 증상이 개선되거나 치료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위치를 기록해두었고, 그 경험을 하나씩 축적하면서 완성한 치료법이 바로 경혈요법이다.

경혈요법은 침, 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지압은 누구나 손쉽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언제 어디서든 질환과 관련된 몸의 경혈자리를 눌러주기만 해도 특정 질병이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부작용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 질환의 반응을 살피며 손가락으로 자극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경혈자리는 어디일까.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 볼 것 없으니 틈날 때마다 수시로 꼭꼭 눌러주시기를.





## 넥센인 앙케이트

# 당신 지갑의 컨디션은 어떤가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편이 찡해지는 건 왜일까요.  
넥센인들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 이진우

## 나는 재테크를 한다 or 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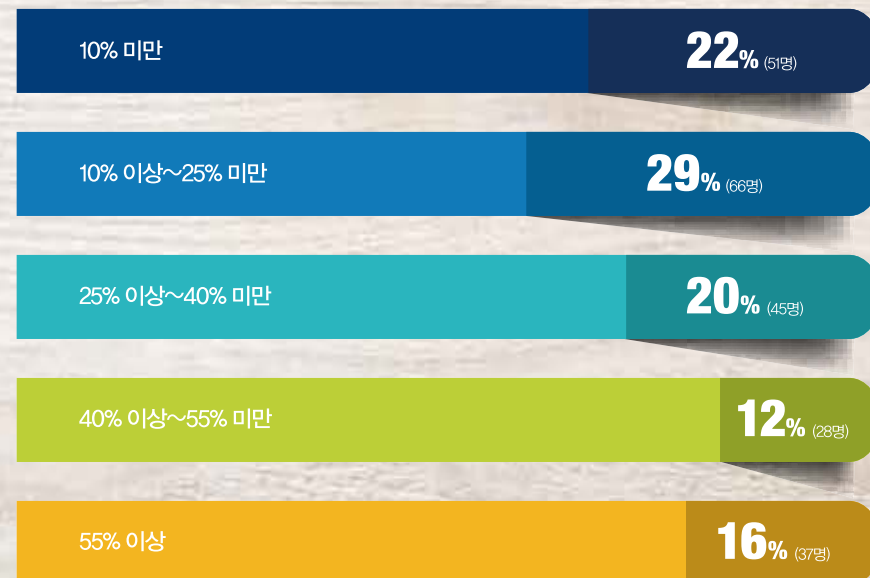
(총 253명)



## 재테크는 수입의 어느 정도?

(총 227명)

1번 질문에서  
재테크를 한다는 넥센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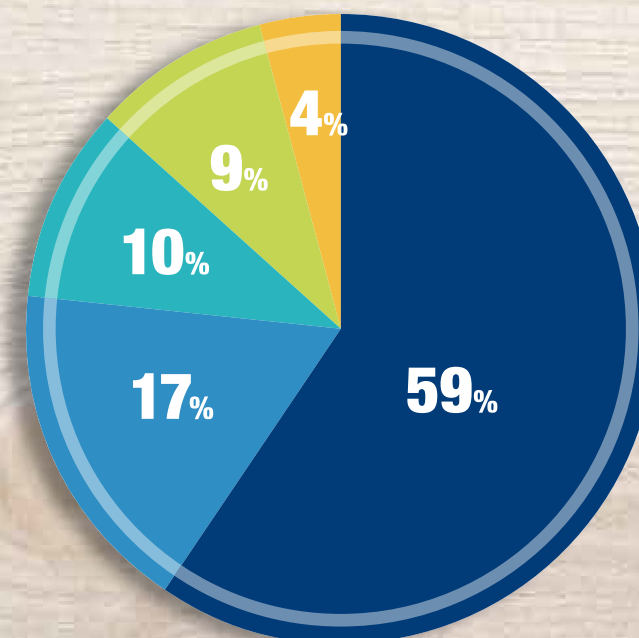
## 재테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총 253명)



##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은?

(총 253명)



저금리라도 안정적으로, 예금 &amp; 적금 (150명)

언젠가는 오를 것이니, 부동산 (43명)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금융 투자 상품 (26명)

탄탄한 한 방을 노린다, 주식 (24명)

기타 (10명)

• 임대업이 최고!, 예금 & 적금 & 연금 & 주식 등 복합적으로(달같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 자산관리사를 통한 전문적이고 주기적인 재테크

경제 전반 상황을 짚어가며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신

최○○ 과장님 재테크에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부자 되시면 피자 한 판 싸주세요~! 🍕



# 7년 만의 화려한 ‘컴백’, 비과세 해외펀드가 돌아왔다

최근 정부가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한시적인 비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과 해외펀드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글 정재혁(경제·경영 전문 인디라이터)

## 해외펀드 열풍 다시 불까?

“앞으로는 펀드의 ‘펀’ 자도 꺼내지 마세요” 펀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진저리를 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된다. 아마 펀드에 가입했다가 예기치 않게 ‘폭박’을 찬 경험을 해본 사람들일 것이다. 그 쓰라린 경험 중에는 해외펀드 투자로 인한 실패도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는 걸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쯤 해외펀드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다.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의 경제가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여기에 정부가 해외펀드 비과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해외펀드 투자는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뜨겁게 타올랐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2년 7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과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 개미 투자자들은 모처럼 불어온 증시 호황에다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라는 호재에 앞다퉈 해외펀드 상품에 가입했다. 2006년 말 9조 원이었던 해외 주식형 공모펀드가 2007년 말 50조 원으로 다섯 배를 넘었다는 것만 봐도 당시 해외펀드 열풍이 얼마나 거셌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도 낯설던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에서부터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식까지 개미 투자자들은 낯선 미지의 나라 주식에 대해 과감한 ‘묻지마 투자’를 감행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해외펀드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2008년 국제적인 금융 위기로 전 세계 자산 거품이 빠지면서 반 토막, 1/3 토막씩 난 펀드가 줄줄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는 깊고 선명했다. 한 번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이후 쉽게 해외펀드 투자에 나서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해외펀드 투자 금액도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부가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한시적인 비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사라졌던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를 왜 7년 만에 다시 꺼낸 것일까? 그리고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에 담긴 자세한 내용은 어떤 것일까?

## 98%의 해외시장을 노려라

증시가 활황이거나 불황이라고 해도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증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쳐도 오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주가지수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한번 확대해보자. 국내 증시가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활황에 급등세를 보이는 시장이 있기 마련이다. 투자 대상이 넓어지면 당연히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분산투자를 한다고 해도 2% 이내에서만 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나머지 98%의 주식에 대해서는 손도 댈 수 없다.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7년 만에 돌아온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분산투자자와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해외 주식시장 투자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가 하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부동산,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해외펀드라고 해서 모든 펀드가 다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여러 해외펀드 가운데 주식형 펀드만 혜택 대상이다.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주식형 펀드,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고 하는데, 이번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는 바로 주식형 펀드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매매 및 평가 차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007년에 시행되던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과 다른 점 하나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었지만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했기 때문에 매매 및 평가 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내야 했다. 이번 조치의 경우 배당소득과 환헤지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방침이다.

### 신규 가입은 2년, 비과세 혜택은 10년

“이미 해외펀드를 가입한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아쉽지만 이런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 제도가 시행된 2월 말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전용 계좌를 새롭게 개설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해외펀드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에 따라 각 자산운용사에서 이 혜택에 맞는 해외펀드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미 해외펀드 상품에 가입해 새로운 펀드를 가입할 만한 여력이 없다면 현재 보유 중인 해외펀드를 환매하고 신규 계좌로 다시 가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펀드 가입은 지금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21개월 동안만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신규 가입과 관계없이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2007년의 세제 혜택에서 한발 더 나아간 부분이다. 당시엔 상품 가입 기관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똑같이 예정된 2년 7개월이 지난 후 비과세 혜택도 모두 종료됐다.

이번 비과세 혜택의 경우 해외펀드 상품 가입은 2017년 12월 말까지 2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지만 혜택은 펀드를 중간에 환매하지 않는 한 10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가입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다. 1인당 납입 한도는 원금 기준으로 3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물론 금액 외에 거래하는 금융회사나 계좌, 펀드 수에는 제한이 없다. 3천만 원 한도에서 펀드 상품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여러 개의 펀드에 분산투자해도 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 펀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해당 펀드 상품에 대한 추가 납입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2017년 말까지 2~3개 정도의 펀드에 미리 가입한 뒤 2018년 1월 1일 이후로는 추가 납입하는 형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상품 외에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해외 주식을 60% 이상 편입한 ETF 상품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년 만에 돌아온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투자자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해외 투자

비중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주식투자 가운데 해외 투자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이 20~30%를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채 되지 못한다. 분산투자자와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해외 주식시장 투자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정부의 세제 혜택이 곧 해외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의 조절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렸다 줄이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깎아주면 서까지 해외펀드 투자 혜택을 주는 것이 결코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각국 주식시장의 상황이 불안정하다거나 이미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면 수익은 커녕 들어가자마자 투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 특정 국가의 주식시장이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분산투자자와 장기투자자로 해외펀드 비과세의 혜택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⑩

### Tip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투자 대상**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가입 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납입 한도**  
1인당 3천만 원  
**세제 혜택**  
매매, 평가 차익 및 환차익 비과세, 배당 및 이자소득 등은 과세  
**비과세 기간**  
가입 시점부터 10년





“

### 참여해주세요

〈헬로우넥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회사, 팀 내 이슈 자랑하기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http://www.nexentire.com)) 및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exentire.korea](http://www.facebook.com/nexentire.korea)),  
엽서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4월 중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5월 15일까지 아래 사보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사보 담당자 055-370-4118 hellonexen@nexentir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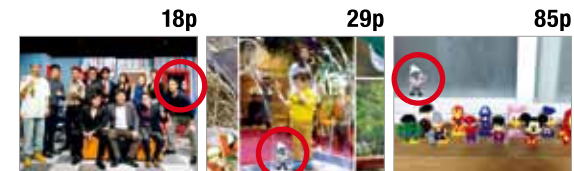
”

#### 〈헬로우넥센〉 곳곳에 숨은 넥세니를 찾아보세요!

사보 곳곳에 숨어 있는 넥세니를 찾아 페이지를 모두 적어 보내주세요.  
(총 3곳)



#### 지난 호 정답



#### 퀴즈 당첨자

한종철 대구시 동구 화랑로  
김남일 강원도 강릉시 토성로  
서덕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도일로  
윤 설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임석길  
김대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양서희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설민호 전라남도 여주시 여서로  
김재익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화신2길  
안재일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양이준 전라남도 여주시 관문1길

## 특별한 가치가 있는 곳, 마곡R&D산업단지의 주인을 모십니다!!



#### 고급 연구인력 수급의 최적지

- ▶ 78만 사업체와 400여개 대학원·대학교가  
모인 산학연의 중심, 서울시내에 위치

#### 탁월한 교통 인프라

- ▶ 지하철 3개 노선(5호선, 9호선, 공항철도),  
6개 역사 소재
- ▶ 김포공항까지 2km(5분),  
인천공항까지 40km(35분) 거리에 위치



#### 쾌적한 연구 환경과 편리한 업무환경

- ▶ 산업단지 한가운데 서울을 대표하는  
대형공원 조성(여의도 공원의 2배 이상)
- ▶ 호텔, 컨벤션, 쇼핑시설, 대학병원, 관공서 등  
생활편의시설 입주 예정

#### 주변지역 대비 저렴한 분양가(추정 조성원가: 324만원/m<sup>2</sup>)

- ▶ 산업시설 용지 조성원가로 공급

####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문의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02-2133-1527~9)  
e-mail : anytime5@seoul.go.kr  
<http://citybuild.seoul.go.kr/magok>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 타이어도 렌탈하고 관리받자!



## 주행거리 걱정 ZERO! 파손 걱정 ZERO!

### NEXT LEVEL 걱정 ZERO 프로그램



**타이어 마모·파손 Care**

마모·파손시 2개까지 추가교체 (4개 렌탈 가입시)



**업계최초 찾아가는 방문점검 서비스!**



**고객이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차량 10대 항목 안전점검!**



**타이어 위치교환 무상서비스 (1회 한정)**

## NEXT LEVEL

넥센타이어가 만든 신개념 렌탈서비스

